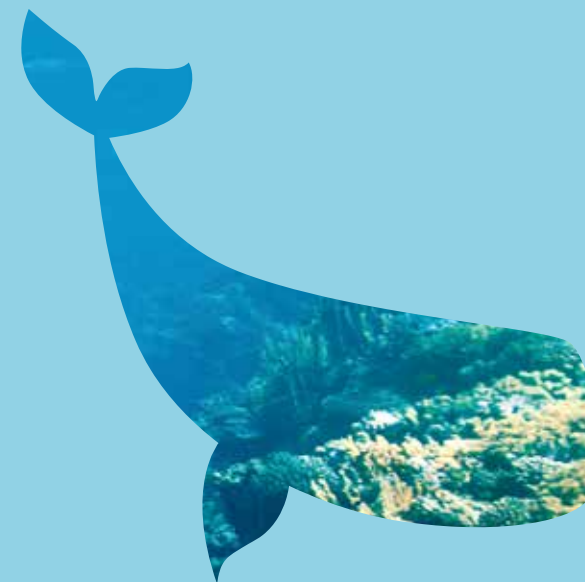


海 해양생물 이야기

Vol.68 | 2018 SUMMER

www.koem.or.kr



Cover Story



이빨을 가진 동물 중 가장 커다란 포유류, 향고래

거대한 사각형 머리가 인상적인 향고래는 몸길이만 18m~20m, 몸무게는 40~70톤에 달해요.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커지고 흰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수력이 뛰어난 향고래는 한번 바닷속에 들어가면 한 시간이나 물속에 잠겨있을 때도 있으며,

수심 2,250m나 되는 해저로 내려갈 만큼 깊은 바다를 좋아해요.

1986년부터 국제포경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해양생물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종을 말합니다.



지구별에서 이빨을 가진 동물 중 가장 커다란 덩치를 가진,
나는 ‘향고래’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유유히 헤엄치기를 좋아해요.

잠수하는 것도 즐거워서, 한번 바닷속에 들어가면 한 시간 동안이나 나오지 않고 해저여행을 하기도 하죠.

저와 친구들이 더 크고 넓은 바닷속을 여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껴주세요!

海 해맑은 이야기

E-Book 바로가기



KOEM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사보 <해맑은 이야기>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도 만나보세요! 홈페이지 E-Book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8



16



36

CONTENTS

KOEM Magazine Summer 2018 Vol. 68

KOEM은 지금

- 06 즐거운 편지
독도 바닷속 지키기!
- 08 현장속으로
특명, 독도 해양생태계를 살려라!
- 12 한눈에 보는 KOEM
바다에 생명을 더하다!

KOEM과 함께

- 14 바다는 지금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 습지에서 답을 얻다
- 16 FOCUS 1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아름다운 손길
- 20 SIDE STORY
바다를 위한 블루위크^{Blue Week},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소개합니다!
- 22 FOCUS 2
“태풍·해양오염 미리 대비해 안전사고 막아요”
- 24 Insight
‘해양환경공단’으로 명칭 변경 새로운 출발, 힘찬 도약
- 26 함께 꾸는 꿈
“미니정원 만들기로 힐링, 동료애는 덤”
- 28 그들이 사는 세상
도움의 손길 닿기 어려운 곳 찾아 희망을 나눕니다
- 30 海를 JOB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 32 KOEM NEWS
해양부유쓰레기 모니터링 위해 ‘드론’ 띄운다 외

바다와 함께하는 상상

- 36 다 함께 바다
원시의 자연과 휴식을 간직한 섬, 말레이시아 사바
- 40 바다에서 만난 사람
바다에서 길어 올린 생, 이정자 수필가
- 44 바다와 캐릭터
21세기 마린 보이, 보얀 슬랫
- 46 바다탐구생활
고래는 어떻게 덩치가 그렇게 커졌나
- 48 문화라운지
바쁜 당신, 올여름엔 문화 바캉스 어때요?
- 50 바다가 들려주는 동화
사라져가는 갯계를 지켜주세요
- 54 순수海 이야기
보름달물해파리 소탕!
- 56 파란우체통
- 58 해양환경교육원 생생후기
- 61 편집후기

발행일 2018년 6월 29일 통권 68호(비매품)

발행인 박승기

발행처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전화 02)3498-8547

기획·디자인·사진 더에이치

해양환경공단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목적 이외의 이용이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사보 구독신청 및 동의서 작성은 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사보 배송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개인정보 관리자 홍보팀 이소연(02-3498-8547, soyeon@koem.or.kr)



사보 <해맑은 이야기>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재생용지로 인쇄합니다. 친환경 재생펄프(DIP) 함유율이 50% 이상인 제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으로 제작됩니다. * 본 사보 내의 외부 원고는 해양환경공단의 공식인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도 바닷속 지키기!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 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지난 6월 초 독도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독도는 서울에서 육로로 3시간, 뱃길로 울릉도까지 3시간 반, 울릉도에서 다시 2시간 반 정도의 긴 여정을 보내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지만, 독도가 지닌 신비로운 기운과 우리 땅 동쪽 끝에서 느낄 수 있는 웅장한 광경은 몽클함을 자아내기에 충분하고, 그동안의 쌓인 피로를 순식간에 잊게 만듭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특히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더욱 큰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단에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총 379종의 해양생물이 독도에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단위 면적당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생물의 터전인 독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독도의 바닷속은 서도 연안을 중심으로 바다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다 사막화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석회수들이 석회가루로 석출되어 해저 생물, 해저면, 바윗돌 등에 하얗게 달라붙어 황폐해지는 현상입니다.

독도 해역에서는 해조류를 먹어치우는 성게와 다른 해조류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석회조류가

바다 사막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2014년에 비해 2017년에는 갯녹음 면적이 150%나

증가(9.7ha→14.6ha)하여 해양생태계가 빠르게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도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나섰습니다.

지난 3년간 독도해역의 바다 사막화를 심화시키는 성게의 주 산란기인 8~9월이 도래하기 전 집중적으로 성게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4.8톤을 수거하였고 갯녹음 해역 2.2ha에서 석회조류를 치우는 갯닦기를 시행했습니다.

올해도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5일 독도에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환경 전문기관인 우리 공단, 바다숲 조성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물론 부산시, 한국수족관 발전협회, 경북도, 울릉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역 어촌계, 기타 자원봉사자 등 다수의 기관 및 단체가 모였습니다.

이에,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도에서 수중 망치파쇄 방법으로 성게를 수거하고 석회조류 제거와 친환경 공법을 이용한 자생 해조류 이식을 시연하는 한편, 먹이사슬의 상위포식자 조절^{Top-down control}을 통해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성게의 천적 생물인 돌돔 치어 1만 마리를 독도해역에 방류했습니다.

독도라는 지리적 여건상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독도를 위한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해양생태계 복원에 큰 성과로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성게 제거작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갯녹음 해역에 이식된 해조류가 갯바위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해 우리 독도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지켜나가겠습니다.

2018년 6월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이성준





특명,

독도 해양생태계를 살려라!

‘바다의 날’ 맞아 독도 해양생태계 개선사업 행사개최

갯녹음'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독도 해역을 살리기 위해 해양환경공단이 직접 나섰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부, 울릉군, 한국수산업자관리공단 등과 함께 6월 5일 독도 동도 선착장 일대에서 성게 제거 작업과 석회조류 제거를 위한 갯닦이, 돌돔치어 방류 행사 등을 열었다. 바다의 날을 맞아 개최된 ‘독도 해양생태계 개선사업 기념행사’의 생생한 현장을 따라가 봤다.

글 노경희 사진 KOEM 제공

성게의 천적, 돌돔 치어 방류

6월 5일 오전 8시, 울릉도 사동항에서 독도로 향하는 독도평화호에 오르는 해양환경공단 직원들의 표정에는 남다른 각오가 묻어났다. 현재 울릉도·독도 해역은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주목받고있으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성게의 이상 증식 및 석회조류 증가로 갯녹음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양환경공단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울릉도청 등은 갯녹음 저감과 해양생태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 역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부 외에도 한국수산업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한국수족관발전협회, 지역어촌계 등 유관단체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독도 선착장에 발을 내딛자마자 행사 참가자들은 누구나 할 것없이 해역의 수질과 생물의 상태를 살피며 ‘돌돔 치어 방류행사’를 준비했다. 성게 포식자인 돌돔의 치어류는 주요 갯녹음 해역에 분포되어 자연적인 성게 개체 수 조절을 유도하게 된다. 7~8cm 길이의 돌돔치어 1만 마리를 동도 선착장 일대에 방류됐다.

돌돔 치어는 연안의 중층에서 무리를 형성하고 전장 10cm에 달하면 해조류가 풍부한 연안의 암초 지대에 정착해 생활한다. 돌돔은 새 부리 모양의 강한 이빨을 갖고 있어 성게 등 딱딱한 껍데기도 부수고 내용물을 잡아먹는다. 행사 관계자는 “돌돔이 성게를 잡아먹으면 갯녹음 확산을 막아 독도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 갯녹음 연안 암반지역에서 해조류(다시마, 감태, 미역, 모자반 등)가 사라져 암반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서, 성게의 해조류 섭식, 석회조류 대량 발생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져 해양생태계가 황폐화되는 현상.

2) 석회조류(石灰藻類) 몸 표면에 두꺼운 탄산칼슘·탄산마그네슘 벽이 있는 조류(algae), 이들 식물이 대량발생 후 죽게 되면 다른 해조류가 착생하지 못하는 갯녹음 현상.



갯녹음 개선 현장작업 시연도

이날 행사에서는 갯녹음 개선 현장작업도 함께 진행되었다. 잠수 전문인력은 서도 일대 등 성게 밀집분포 지역을 돌며 성게를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독도 해저 암반의 겉면을 깨끗이 닦아 해조류 포자가 암반에 수월하게 부착하도록 돕는 갯닢이 작업을 벌였다. 갯닢이 작업이 완료된 곳에는 자연 암반에 친환경 수중 접착제를 이용한 해조류 유엽을 암반에 부착하는 일도 병행했다. 초기 포자가 조식동물의 공격과 조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도록 안정적인 구조로 시공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독도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성게·석회조류 제거 및 해조류 이식을 위해 50여 명의 전문 잠수 인력이 참여하는 수중작업이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에는 독도의 해양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많은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 땅 독도의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잘 보존해 해양생물 자원의 보고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독도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독도, 해양생물의 천혜의 서식지로

한편 독도는 해양수산부가 2017년 시행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총 379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등 높은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로 이용되어 생물 다양성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해조류가 110종에 달하고, 대형 해조류인 감태와 대항도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단위면적당 생물량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독도 주변의 일부 해역에서 갯녹음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생물 다양성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공단과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독도 해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갯녹음 원인생물인 성게 4.8톤을 수거하고, 2.2ha에서 석회조류를 제거했다. 올해는 ①갯녹음 진행 → ②성게 개체 수 증가 → ③성게의 해조류 섭식 → ④해조류 서식지 감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성게 서식밀도가 높은 서도 남쪽 해역에서 약 15톤의 성게를 제거할 계획이다.



더 알아보기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 사업이란?

사업 배경

- 독도의 갯녹음 지역이 최근 3년간 급속도로 확장됨에 따라 독도의 생물 다양성이 떨어져 갯녹음 해역에는 성게만 극우점하는 현상 심화
- 독도 갯녹음 원인생물 제거, 해조류 이식 및 천적생물 활용 등 복합적인 개선·복원 노력으로 **독도 청정해역의 우수한 해양생태계 보전**

사업 내용



① 성게 제거

- 제거인력 : KOEM, FIRA, KIOST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잠수 전문인력 약 50명 투입
- 작업구역 : 서도 일대 등 성게 밀집분포 지역



② 석회조류 제거를 위한 갯닢이

- 독도 해저 암반의 겉면을 깨끗이 닦아 해조류 포자가 암반에 부착하도록 유도
- 제거인력 : FIRA 잠수 전문인력 6명 투입
- 작업구역 : 서도 일대(갯녹음 심화지역)



③ 인공 해중림 조성을 위한 해조류 이식

- 갯닢이 후 자연암반에 친환경 수중접착제를 이용하여 해조류(감태 등) 유엽 암반 부착
- 초기 포자가 조식동물의 공격과 조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도록 안정적인 구조로 시공
- 작업구역 : 갯닢이 작업구역과 동일
- 이식해조류 : 독도 자생 대형갈조류(감태, 대항)



④ 돌돔치어 방류

- 주요 갯녹음 해역에 성게 포식자인 돌돔의 치어를 방류하여 자연적인 성게 개체수 조절을 유도
- 방류해역 : 동도 선착장 일대(10,000마리, 7-8cm)

성게 집중제거

- 독도에 서식하는 성게의 종은 모두 동근성게로 확인되어 주 산란 시기인 8-9월 이전인 **4-6월에 제거**하여 개체수 증가를 억제
- 성게는 갯녹음 지역에서 빠른 개체수 증가속도를 보여 서식밀도가 높은 **서도 남쪽 해역**을 대상으로 **집중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
- 성게의 재피복속도를 고려할 때 성게 수거만으로는 갯녹음 제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돌돔과 같은 성게 포식자를 활용**

바다에 생명을 더하다!

우리 바다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해양환경공단의 노력!

해양환경공단은 우리 바다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살아갈 서식지를 지키고 유해종을 줄여 해양생태계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

서식지 살리GO!

1. 생물다양성 회복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보호대상 해양생물(총 77종)을 법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포유류
(16종)



무척추동물
(31종)



해조류/해초류
(7종)



파충류
(4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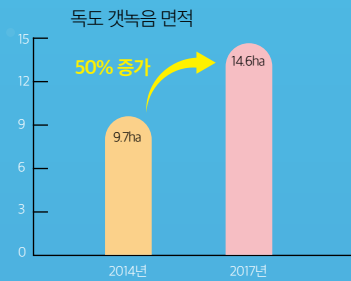
어류
(5종)



조류
(14종)

2. 독도 해양생태계 기능개선 및 복원

(1) 독도의 갯녹음 진행 현황



갯녹음(백화, 바다사막화) 현상
연안 암반지역에서 해조류(다시마, 감태, 미역, 모자반 등)가 사라져 암반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

(2) 독도 서식지 복원 사업 추진 성과

2015년 석회조류 제거
2015~2017 성게 제거
2016~2017 성게 이상증식 원인규명 기초조사 실시

성게 **30 ha, 5톤** 제거
석회조류 **2.2 ha** 제거
해조류 포식생물 **등근성게** 확인
주 산란시기인 **8~9월 이전 제거**

Tip. 해양환경공단의 3가지 친환경해법!



전문 잠수사 투입으로
등근성게 15톤 제거



성게의 천적 돌돔 치어
1만 마리 방류



FIRA와 함께하는
갯녹음 해역의 갯닦기와
해조류 이식

#2

유해종 줄이GO!



해파리로 인한 피해

기후변화 및 연안개발 등으로
인한 해파리 대량 증식

- 어업소실, 쓰임사고 등 연간 약 3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 유발* (국립수산과학원, 2013년)
- 해양생태계 교란·생물다양성 감소

*대표종 : 보름달물해파리

1. 유해해양생물 관리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을 유해해양생물(총 12종)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식물플랑크톤(5종)



자포동물(5종)



극피동물(2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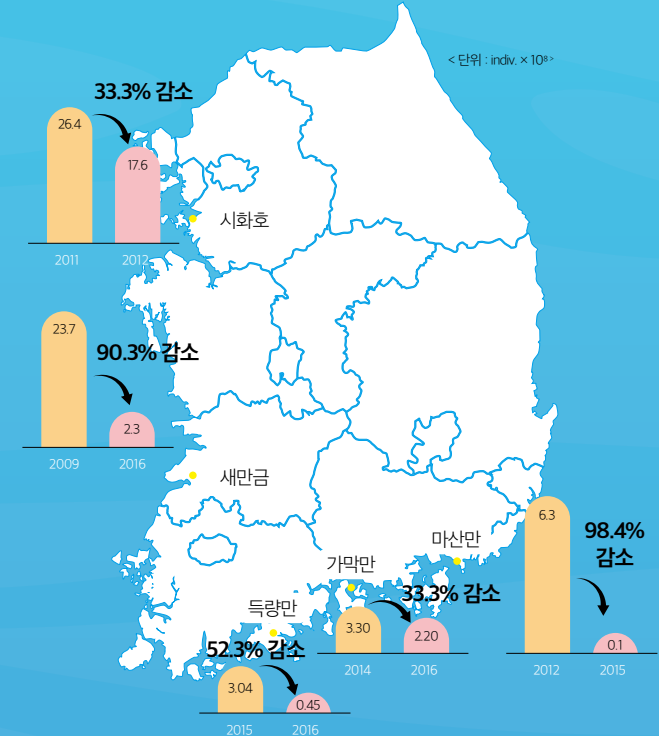
태형동물(3종)



식물(2종)

2. 유해해양생물의 대표, 보름달물해파리 제거 현황

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해파리 대량발생이 보고, 어민, 해수욕장 쓰임사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피해가 계속 됨.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보름달물해파리의 피해예방을 위해 부착유생 단계에 대한 제거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갯끈풀 국내분포 현황(2017. 12 기준)



3. 최근 떠오르는 유해해양생물, 갯끈풀 관리 정책

갯끈풀은 2012년 강화도에서 공식적으로 첫 보고된 이후 빠른 속도로 번식하여 우리나라 갯벌을 황폐화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갯끈풀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제거 방법 연구는 물론 갯끈풀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성과

강화도 남단(줄기제거 및 일부 뿌리제거 : 약 22,281㎡ / 재번성 군락 2차 줄기제거 작업 : 약 12,000㎡)
서천송림갯벌(줄기 및 뿌리 전면제거 : 약 46㎡)



* 갯끈풀 제거작업



‘지속가능한 도시와 미래를 위한 습지’ 주제

습지는 갯벌로 이루어진 연안습지와 호수, 늪 등 내륙습지로 구분되며, 이중 연안습지는 오염물질 정화, 수산물 생산,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 및 철새의 쉼터가 되기도 한다.

국제사회도 이런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람사르 협약* 체결일(1971년 2월 2일)을 세계 습지의 날로 지정하여 회원국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윤번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미래를 위한 습지’를 주제로 열린 제17회 세계 습지의 날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해양환경공단·전라북도·부안군이 함께 주관했다. 첫날인 5월 4일 기념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등 내외빈과 NGO·지역주민 1,000여 명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선 그간 습지보전을 위해 헌신해온 해양환경공단 유세종 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습지보전 유공자 7명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됐으며, 람사르 사무총장의 축하영상 및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를 상징하는 갯벌 퍼포먼스로 습지의 중요성을 알렸다.

*람사르 협약 :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우리나라 가입 '97. 3월)

‘해양환경 이동교실’ 등 공단 홍보부스 인기

한편 행사 기간 동안 14개 기관이 참여한 교육체험 홍보부스, 습지사진 전시회, 습지보전 서약캠페인, 해양환경 이동교실을 운영하고, 습지보전토크 콘서트, OX 골든벨 퀴즈, 미니콘서트와 미술쇼, 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올해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는 미래 습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이자, 갯벌 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갯벌과 함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01년부터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연안습지보호지역 14곳, 람사르 습지 6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갯벌과 함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 습지에서 답을 얻다

제17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

“소중한 가치를 가진 습지를 관리 보전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습지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제17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를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부안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서 개최했다.



해양환경공단 유세종 팀장(오른쪽)이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았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교육원 해양환경이동교실 운영



해양환경공단 홍보부스 운영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아름다운 손길

제23회 바다의 날 기념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하늘색 바다와 끝없이 펼쳐지는 갯벌, 아름답리 해송이 어우러진 영종도 마시안 해변. 지난 5월 29일, 이곳에서는 제23회 바다의 날을 맞아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이 펼쳐졌다. 민·관·군 250여 명이 하나가 되어 정화활동에 나선 이번 행사에는 35명의 해양환경공단 직원들도 참여해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글 김수는 사진 주효상



마시안 해변을 깨끗하게 하는 환경 지킴이

갯벌과 모래해변이 만나는 마시안 해변으로 가는 날, 해양환경공단 직원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영종도로 향했다.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맞아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다. 인천대교를 지나는 동안 직원들은 자외선 차단 모자와 선글라스도 쓰고, 서로의 얼굴에 선크림도 발라 주며 만반의 준비를 한다. 1시간 정도를 달려 영종도 해변에 도착한 직원들은 행사 취지와 청소구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미리 준비해 온 통백을 옆구리에 끼고, 20kg 들이 마대자루와 목장갑, 집게를 들고 해변으로 내려간다.

“마시안 해변은 도심과 가까워 조류를 타고 밀려온 해양쓰레기 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도 많이 유입되는 곳이에요. 수시로 수거해도 계속 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에 정해진 구역으로 이동해 울타리 밑에 있는 쓰레기를 남김없이 수거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수거한 후에는 한 곳에 모아 쓰레기 처리 차량에 실어 집하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주최 측의 설명과 지역주민의 안내에 따라 해양환경공단 직원들은 배정을 받은 구역으로 이동했다. 물이 빠져나간 해변은 음료수 캔, 깨진 술 병, 폐비닐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해양쓰레기가 없었다면 아이보리색 모래와 진회색의 갯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겠지만 폐어구와

스티로폼, 건설 폐기물까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석화가 핀 갯바위 틈에도 페트병, 어망, 나무 조각 등이 곳곳에 박혀 있었다. 직원들은 물결이 일렁이는 해변가부터 갯바위 틈새까지 보물찾기 하듯 살살이 뒤져 마대자루에 쓰레기를 주워 담는다.

갯바위를 넘어 송전탑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자 밀려든 해초더미와 속이 빈 조개껍질 무더기가 뒤엉켜 있고 통나무와 나무판자, 대형 스티로폼 박스 등 덩치가 큰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다. 공단 직원들은 사냥을 한 전리품을 옮기듯 돌씩 짍을 지어 무거운 쓰레기들을 옮기고, 등글고 커다란 스티로폼은 발로 굴러가며 요령 있게 수거 작업을 진행했다.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다

마시안 해변은 회고 고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용유도 명사십리로 통했으며 해당화가 많이 피는 곳이었다. 해당화가 없어진 자리에는 식당과 카페들이 즐비하고, 주말과 연휴 때마다 나들이객이 몰려들면서 지금은 각종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직원들은 폭푹 발이 빠지는 모래사장을 지나 소나무들이 우거진 아늑한 언덕으로 올라갔다. 해변과 소나무군락지 경계면에 있는 커다란 바위틈에서 찢어진 텐트와 군화, 폐어

망을 힘겹게 끄집어낸다. 소나무 그늘에서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아내고 잡초와 아직 덜 자란 억새풀이 무성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는 맛소금 봉지부터 주방세제를 담았던 플라스틱 통, 음식물찌꺼기가 말라붙어 있는 컵라면 용기와, 건설 폐기물까지 다양한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어업 활동 중 버려진 쓰레기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나올 것 같지 않은 생활 쓰레기들이 많이 수거돼 놀랐어요. 공단에 입사하게 된 동기도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인 만큼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참여해 바다와 자연,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 싶어요.” 해양환경공단 박보미 사원이 소감을 전했다.

직원들은 금세 가득 차버린 마대자루 속의 쓰레기를 여러 번 톤백에 옮겨담았다. 모래에 파묻혀 있던 구멍 난 튜브와 밧줄도, 쇠파이프와 크기가 큰 페어구들도 여럿이 힘을 모아 한 곳에 모아놓는다. 실 틈 없이 수거 작업을 하는 사이 서서히 바닷물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서둘러 쓰레기가 가득 담긴 톤백을 모아 정돈한다. 집하장으로 이동하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싣기 위해서는 톤백을 들고 갯바위를 넘어가야 한다. 2시간 정도 수거 작업을 해 모은 쓰레기는 무려 1톤짜리 톤백 10개가 넘는다. 직원들이 톤백 손잡이를 묶어 정리를 하는 동안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소속의 해군들이 지원군이 되어 쓰레기를 옮기기 시작한다. 해양환경공단 직원들도 능숙하게 길고 둥근 나무와 쇠파이프를 톤백 손잡이에 끼워 4인 1조로 쓰레기를 옮긴다. 소나무군락지로 쓰레기를 수거하러 갈 때 쉽게 넘었던 갯바위를 무거운 톤백을 짊어지고 옮기려니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떨린다.



“하나, 둘, 셋, 넷!”

서로 힘을 모으려는 찰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절로 힘찬 구령 소리가 나온다. 직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척척 업무를 분담하여 뒷정리를 시작했다. 일부 직원은 모아둔 쓰레기 톤백을 차량에 옮겨담고 나머지 직원들은 쓰레기 수거에 사용했던 집기와 목장갑 등을 모아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오늘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하면서 하루에 수거되는 해양쓰레기의 양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깨끗해진 마시

안 해변을 보면서 힘을 합치면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동료들과 하나가 되어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해양환경공단 박주영 사원이 당찬 포부를 밝혔다.

여름이면 해안가에 지천으로 흐드러진 붉은 해당화가 물결을 이루고, 겨울이면 새하얀 눈을 뒤집어쓴 해송들이 거북바위, 조름섬과 어우러져 수려한 비경을 만들어내는 마시안 해변. 바다를 사랑하는 공단 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의 손길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훼손된 경관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



바다를 위한 블루위크 Blue Week,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소개합니다!

제23회 바다의 날 맞아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 2만5,000명 이상 참여 1,720여 톤 수거·처리



해양쓰레기 몸살, 수산자원 감소 등 피해 심각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가 연간 18만 톤. 정부·지자체 등에서 매년 7~8만 톤가량을 수거하고 있지만, 수거되지 못하고 남은 해양쓰레기는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유령어업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일단 바다로 유입되면 빠르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1만 5,000km에 이르는 전국 해안선을 따라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적기에 전체 양을 수거하기 어렵다. 게다가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비율이 전체 해양쓰레기 발생량 중 67%를 차지하고 있어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육상에서부터 발생량을 줄이고 유입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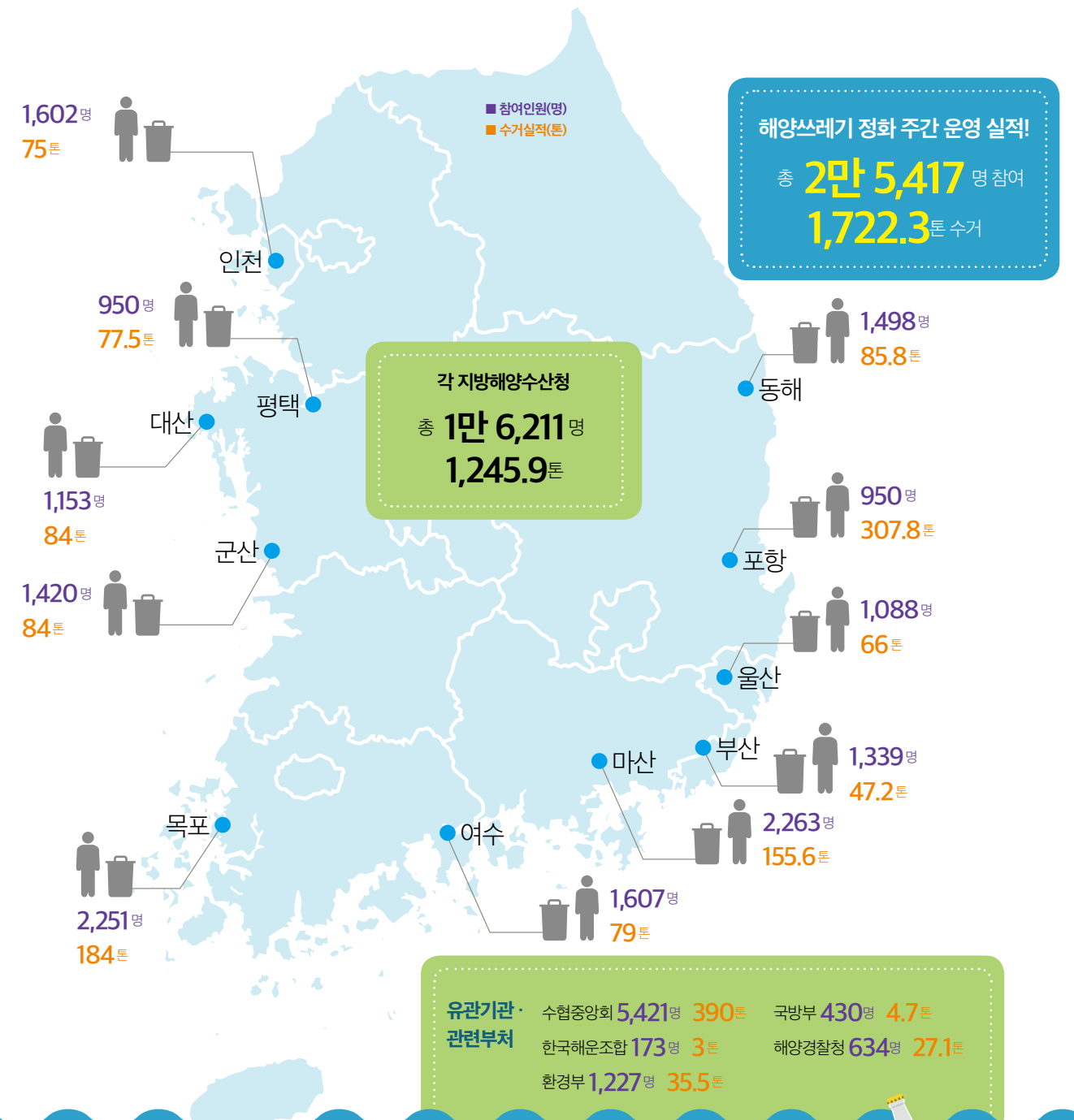
바다의 날 맞아 해양정화, 2만5,000여 명 나서 1,720톤 치워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해양쓰레기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인식증진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쓰레기로 고통받는 우리 바다를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했다. 제23회 바다의 날을 맞아 전국 동시다발적인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만들기 캠페인이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로 해양수산부와 11개 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등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총 2만5,000명 이상이 참석, 해양쓰레기 약 1,720여 톤을 수거·처리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될 수 있도록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연안 정화의 날'로 정해 해안가 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 정화주간(5. 28 ~ 6. 5) 운영실적





FOCUS 2

“태풍·해양오염 미리 대비해 안전사고 막아요”

해양환경공단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오염방제 전문기관이자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간을 맞아 전국 주요항만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와 해양재난에 대비한 훈련에 참여했다.

사진 장현진



여수신항·오동도 일대에서 해상·해안방제훈련

5월 8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훈련에는 총 634개 기관과 일반 국민이 함께했다.

해양환경공단은 훈련 기간중 5월 17일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조수·태풍·해양오염 재난대응훈련'에 참여하여 해양자원이 풍부한 여수신항과 오동도 일대에서 해상·해안방제훈련을 마쳤다.

또한 당일 현장훈련에 앞서 유회수기 모형 전시 등 국민체험형 방제장비 홍보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국훈련이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날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훈련에 적극 참가해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쳤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울산지사를 시작으로 안전한국훈련 마지막 날까지 총 20회 이상의 재난훈련에 참여했다”라며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2차 유류오염 가능성이 높은 각종 해양재난에도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란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대형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진 대응 요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와 다중시설 화재 대응의 필요성도 한 층 절실했던 상태다.

지진과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과 실질적인 대응 요령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에 기반을 두어 실시해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불시 재난 대피 훈련 시범으로는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이 아닌, 불시에 재난 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참여하는 지진 복합 재난훈련 등을 통해 국민 스스로 대처하는 역량 향상을 높이고 기관 간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민간기업 의무 참여 시행으로 지난해에는 자율 참여를 유도하였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소방시설법, 재난안전법상 훈련의무 실시 기관에 한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해양환경공단’으로 명칭 변경 새로운 출발, 힘찬 도약

‘해양환경공단’ 기관 명칭 변경 및 현판식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환경공단’으로 새로 태어난다. 해양환경공단은 5월 1일 본사에서 박승기 이사장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바뀐 현판 제막식을 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해양환경 이슈에 선제적 대응 강화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해 10월 기관 명칭 변경 내용이 포함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명칭에 포함된 ‘관리’가 주는 지휘·통제·관료적 이미지를 털어내고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중심 공적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해양환경공단의 의지와 기대를 담고 있다.

공단은 1997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으로 출범해 2008년 1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된 후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및 해양오염 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앞으로 해양환경공단은 해양공간 관리, 해양 미세플라스틱 측정 관리, 해양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다양한 해양환경 이슈에 대하여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만드는 데 최선

또한 해양오염 대응에 있어서도 사후조치 위주 정책에서 탈피해 드론과 ICT 기술을 활용한 사전예방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 해양환경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국민이 참여하는 소통 활성화로 ‘열린혁신 선도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공단의 핵심사업과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통해 미래에 도전하는 많은 청년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데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명칭 변경과 함께 국민 중심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인권, 안전, 청렴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해양환경공단이 되겠다”며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고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고객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며, 해양환경 이슈에도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KOEM 新비전·경영전략 선포

지난 2월 11일, 해양환경공단에 박승기 이사장이 새로 취임하며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직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신뢰를 이끌어냈다. 이와 더불어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공단의 발전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공단의 새로운 비전과 경영방침을 도출해 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미션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국민
with KOEM

비전

공정과 신뢰
상생과 협력
소통과 화합
도전과 열정

경영방침

경영목표

- 해양보호구역 39개소 지정·관리
- 특별관리해역수질 3등급 이상 95%
- 해양오염사고 예방률 65% 이상
- 침물선박 270척 위험성 모니터링
- 미래성장매출액 1,100억원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간 3,000명
- 고객만족도 S등급
- 청렴도 평가 1등급

KOEM 신 경영전략

4개
전략목표

건강한
해양가치 보전

안전한
해양가치 구현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사회적 가치
실현

12개
전략과제

- 해양생태계 보호·복원 확대
- 해양수질 모니터링 강화
- 해양폐기물 정화 및 관리체계 고도화

- 해양방제 역량 강화
- 해양오염 Co-Work 예방체계 강화
- 잠재적 해양오염 요인 선제 제거

- 미래성장 인프라 구축
- 미래혁신 신성장 사업 발굴
- 지속성장을 위한 재무건전성 제고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이해관계자 협업 기반 공적가치 창출
- 국민 공감 조직 역량 혁신

“미니정원 만들기로 힐링, 동료애는 덤”

부산지사·해양환경교육원 미니정원 만들기 클래스



부산의 6월은 푸르렀다. 부산 영도에 위치한 해양환경교육원에도 녹음 짙은 여름 냄새가 가득한 가운데, 부산지사, 해양환경교육원 직원들이 모였다. 파릇파릇한 다육식물로 나만의 미니정원을 만들며 이미 성큼 다가온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서다.

글 노경희 사진 주효상 영상 김요늘



손엔 다육식물과 모종삽, 얼굴엔 설렘 가득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다육식물은, 꽃이나 나무를 키우는 데 자신 없어 하는 이들도 쉽게 키울 수 있어 인기가 많아요. 귀엽고 올망졸망한 모양에 생존력도 좋은 다육식물이 여러분의 책상 위에서 작은 ‘힐링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양환경교육원 회의실에 모인 10여 명의 직원은 책상 위에 준비된 다육식물들을 살펴보고 잔뜩 기대에 찬 모습이다. 강사의 첫 설명이 끝나자 여기저기 질문이 쏟아진다. “물 주는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대로도 정말 예쁘는데, 혹시 꽃도 피나요?” 강사가 가지고 온 앙증맞은 네모 형태의 미니정원을 보며 나만의 정원을 만들고 싶어 모종삽을 들고 배양토를 뜯 준비부터 하는 직원들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하다.

* 소확행(小確幸)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을 말한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소확행’

20대 신입사원부터 50대 중견 임원까지 다양하게 모인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놓친 부분은 서로 묻고 도와가며 미니정원을 꾸며나갔다.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너무 길고 자잘하게 나와 있는 뿌리들만 정리하면 돼요, 여기 가위!” 직접 도구를 건네며 설명을 주고받는 이들 사이에서 어느새 바쁜 업무로 잊고 있던 동료애가 피어난다.

“바쁘다는 핑계로 다정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던 직원들과 모여 미니정원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니 정말 좋아요.”

활짝 웃는 직원들의 손에서 완성되어가는 다육식물 미니정원과 함께 서로에 대한 배려와 동료애도 함께 완성되어 갔다.

교육개발팀 김선영 대리는 “요즘 ‘소확행’을 이루려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공단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소확행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미니정원 만들기 클래스다”라며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갖고자 한다. 직원이 즐겁게 일하는 해양환경공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육식물 힐링 가드닝(미니정원 만들기)

재료

다육식물 3~4종, 배양토, 난석, 백석, 자연석

과정

1. 화분 물구멍을 흙이 흘러나가지 않게 화분갈망으로 막아준다.
2. 화분바닥에 2cm 정도 난석을 깔아 배수층을 만든다.
3. 다육식물을 심기 전에 미리 자리를 배치해본다.
4. 난석과 배양토를 8대 2 비율로 섞어서 화분을 채워준다.
5. 자연석을 장식으로 올려준다.
6. 다육식물은 분갈이 일주일 이후 종이컵 하나의 분량으로 골고루 물을 준다. 이후에는 물을 필요로 하는 다육식물 위주로 물주는 주기를 달리하여 관리한다.

도움의 손길 닿기 어려운 곳 찾아 희망을 나눕니다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좋은데이 봉사단

늦은 봄비로 촉촉하던 5월 말, 마산의 노인사회복지시설인 애양원에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직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낯은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은 밝은 표정의 직원들은 마산지사 '좋은데이 봉사단' 회원들이다.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는 마산지사 '좋은데이 봉사단'의 하루를 따라가봤다.

글 노경희



업무 특성상 시설·기계 수리 도맡아

애양원 사람들에게 '좋은데이' 회원들은 익숙하고 친근하다. 마산지역에서도 도심과는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이곳에는 다른 복지시설과 번갈아 2개월에 한 번 정도 들러 청소와 각종 시설 수리를 하고 있다. 특히 선박 관리 등의 업무 특성상 기계를 잘 다루는 직원들이 많아 사회복지시설의 웬만한 시설 고장이나 기계 수리는 도맡을 정도다. 좋은데이 회원들은 "고장 난 기계들을 모았다가 우리가 오는 날이면 한꺼번에 내놓으실 때도 있다"며 웃었다.

40여 명 모여 제조작업·청소 열중

이날 모인 40여 명의 회원은 2개 조로 나눠 시설 청소와 기계 수리, 제조작업에 열중했다. 특히 비가 내리는 바깥 제조작업에도 싫은 기색 없이 작

업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김판구 소장은 "얼마 동안 찾지 못했더니 잡초 등이 무성해 빨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다"라며 "하루 날을 정해 건물 뒤편에 쌓여있는 고철들도 정리하기로 회원들과 얘기해놓았다"고 말했다.

회원 중 좀 더 꼼꼼한 편인 이들은 건물 내 청소를 맡았다. 익숙한 듯 대걸레와 먼지떨이를 진 이들은 식당과 로비, 계단, 어르신들의 묵는 방을 돌며 묵은 먼지를 털어냈다. 총별로 삼삼오오 모인 이들은 잡담 한번 없이 청소

에 열중했다. 지나는 어르신들에 "식사는 하셨어요?"라며 친근한 말을 건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올해 봉사활동 700시간 목표

한편 좋은데이 봉사단은 올해 7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판구 회장(마산사업소 소장)은 "지역사회 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10월경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의 날'의 봉사단체로 참여하여 활동을 넓힐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전문적·지속적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공단 홍보 및 국민복지 증진,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MINI INTERVIEW

'좋은데이 봉사단'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산지사에서 운영 중인 좋은데이 즉구동호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좋은데이 봉사단에는 지사 전 직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운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상호 간 동료애 강화,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이 봉사단'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직원들과 사회공헌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기존 일회성·단발성 이벤트에 그치는 노력봉사 아니라,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직원들의 재능을 연계한 체계적·지속적인 재능기부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견을 모아 2017년 2월 좋은데이 봉사단을 창단했으며,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 1004 지역사회 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대회장 권태균 기관장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좋은데이 봉사단은 연안·어촌계 정화, 해양환경교육, 소외계층 노력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노인복지시설의 어르신들과 함께한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노인복지시설 방문은 우리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는 다소 무관한 봉사활동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변의 소외된 분들을 찾아뵙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었고, 가족처럼 반겨주셔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산지사 직원들 모두 많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또 많은 봉사자들조차 외면하는 봉사활동을 앞장서서 하며, 공기업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일자리가 궁금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채용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다음 호에 만나고 싶은 기관이 있으면,
7월 31일까지 koempr@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1

WHO IS FIRA

2011년 '수산자원사업단'으로 출범, 2012년 1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동·서·남해·제주 등 4해역본부에 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크게 ▲수산자원 회복 ▲대규모 바다녹화 추진 등 2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 중이다.

주요성과

바다식목일 세계최초 바다식목일(5.10) 제정·시행(2013)

바다목장 2017년까지 전국 45곳에 바다목장(완공 30, 추진 중 15) 조성,

2022년까지 50개소 완료 목표

바다녹화 2017년까지 바다숲 15,252 ha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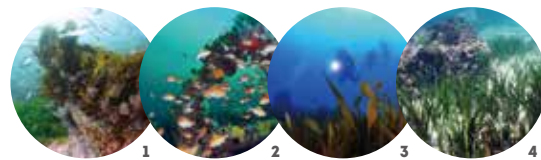
2030년까지 5만4,000ha의 그린아쿠아벨트 조성

종자방류 2017년까지 1억 마리(연어 9,300만 마리 등) 방류, **방류종자인증제 도입**



2030년 전 연안의 75% 바다녹화 54,000 ha, 연근해 어업생산량 130만 톤 회복

사업관련



- 1 도루묵산란장 조성
- 2 바다목장 조성(어초시설)
- 3 바다숲 모니터링
- 4 잘피숲 조성

GUIDE TO FIRA

#2

1. 2018년도 채용계획

6월 이후 21명 채용공고 예정

2. 채용 분야 및 응시자격

- 행정직 6명, 연구기술직 15명
- FIRA는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하고 있어 일부 채용 분야를 제외하고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공, 학력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

3. 채용절차

서류, 필기, 면접 등 3단계 공개경쟁시험으로 진행됩니다.

4. FIRA 인재상

바다를 건강하게, 어장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직무능력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성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사람

5. 우대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직무 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FIRA Q&A

나이 제한이 있는지?

없습니다. 단,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만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8월 졸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가능합니다. 최종 임용을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예상합니다.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지원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입사 지원 시 전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학성적에 따른 지원자격 제한이 있나요?

어학 능력이 필요한 채용 분야의 경우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하여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해외 동포, 국내 거소증 소유자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몇 배수를 뽑나요?

일정 점수 이상 득한 지원자를 모두 선발하여 필기시험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서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면?

채용 분야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경험 등을 검토합니다.

NCS 필기시험 준비 방법은?(추천해줄 만한 책이 있는지?)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 직무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어면접을 진행하나요?

어학능력이 필요한 채용분야에 한하여 진행합니다.

면접장소는 어디인가요?

부산입니다.

근무지는 어떻게 되나요?

본사는 부산이며 전국에 4개 본부, 5개 센터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나요?

수습기간은 6개월입니다.

MINI INTERVIEW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기획운영팀 김미수 사원



“공단 인턴 기간, 기관 성격과 잘 맞는지 충분히 고민할 좋은 기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7월 공채로 입사하여 현재 서해본부 기획운영팀에서 일하고 있는 새내기 직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상반기부터였습니다.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대학교 졸업 전까지 토익·한국사·한국어·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졸업 전까지 모두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좋은 기회를 맞아 지난해 3월, 공단 청년인턴으로 뽑혀 5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입직원 공채 소식을 듣고 약 한 달간 필기시험을 준비했어요. 일반상식과 수산 일반 과목을 공부했는데 수산일반은 제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우다시피 했죠.(올해 시험과목과 다를 수 있음) 한편 많은 취업준비생이 공기업 취업을 꿈꾸고 있는데, 준비가 조금 덜 되었을지라도 어디

든 지원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연히 얻는 필기시험, 면접의 경험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또한 기회가 된다면 인턴으로서 근무하며 자신이 공기업에 어울릴만한 사람인지를 고민하는 시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업과는 다른, 공기업만이 가지는 특성이 있으니까요.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취업이 늦어지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모두가 꿈꾸는 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인 것 같아요. 마음에 절망을 품지 마시고 “결국에는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 모두 파이팅!

KOEM NEWS

해양부유쓰레기 모니터링 위해
‘드론’ 띄운다



해양쓰레기 관리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한 수거·처리 가능해져

해양환경공단은 6월 초부터 8개 무역항에서 드론을 활용한 해양부유쓰레기 모니터링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공단은 각 항만에 배치된 청항선을 활용하여 해양부유쓰레기 모니터링을 해 왔으나, 동원 가능한 선박에 비해 모니터링 지역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수심이 낮은 해역은 청항선 접근이 어려워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제주(서귀포)해역에서 드론을 이용한 해양부유쓰레기 및 통항장애물 모니터링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청항선 운항이 제한되었던 저수심해역의 순찰이 가능해져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드론 운영의 효과성이 입증됐다.

앞으로 공단은 8개 항만에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본격적으로 도입·활용할 예정

이며 청항선 순찰 항로는 물론 유속이 빠른 해역과 같은 청항선 순찰 사각지대에도 드론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드론 활용으로 인해서 기존 청항선 순찰에 비해 순찰소요시간은 50% 단축되고 유류비는 연간 1억여 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절감된 유류비로 원거리 여객선 항로 등 그동안 순찰 시행이 어려웠던 해역에서의 청항선 순찰을 보다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재해쓰레기나 부유성 해조류 등 대규모 해양부유물 발생 시에도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활용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항만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부유쓰레기수거 #드론



해양환경조사선 아라미1호에서 해양관측 실습

해양환경공단은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인천 연안에서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학생 39명을 대상으로 전공필수 과목인 ‘해양관측 및 실습’에 아라미 1호 선박을 지원해 해양환경교육을 했다. 교육을 위해 공단 연구원이 선박에 함께 동승해 해양환경조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해수 및 해저퇴적물 채취, 현장 수질 측정을 위한 전처리 과정 및 용존산소 측정 등의 실험을 학생들이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아라미1호 #해양과학 #현장실습 #해양인재양성



10톤급 방제선 ‘환경9호’ 건조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4월 23일 전남 해남에 위치한 대광조선에서 10톤급 방제선 ‘환경9호’를 성공적으로 건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조된 ‘환경9호’는 기존에 운영하던 노후선박(105 청룡호)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된 선박으로 길이 15.8m, 폭 4.6m, 최대속력은 약 24노트(44km/h)에 달하는 소형 방제선이다. 수심이 낮은 연안과 도서 지역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물자·인력 수송, 방제작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설계됐다.

#환경9호 #방제선



NOWPAP-TEMU 한·중·일·러 공동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6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호메르스 호텔에서 ‘2018년 NOWPAP-TEMU 해양쓰레기 관리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워크숍은 한국이 주관이 되어 부산에서 개최했으며, NOWPAP 회원국인 한국·중국·러시아·일본 4개국의 해양쓰레기 관련 정부기관 대표와 연구기관, NGO 등 60여 명이 참석해 각국의 해양쓰레기 관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중일러 #공동워크숍 #해양쓰레기대응센터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5월 24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시상식에서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수산 분야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해양환경공단은 2010년부터 소속 기관인 해양환경교육원을 중심으로 전국 12개 지사와 함께 약 20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해양환경 진로 체험교육을 제공해 왔다.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국무총리표창

KOEM NEWS

중국과 손잡고
유해해양생물 대응방안 논의



한·중-YSLME 유해해양생물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이 대량발생으로 인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해파리, 갯끈풀, 갯생이모자반 등 유해해양생물의 저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을 6월 25~26일 중국 쿤밍에서 개최했다.

‘한·중-YSLME 유해해양생물 워크숍’은 해양수산부, 중국 국가해양국(SOA), 유엔 개발계획(UNDP) 황해광역해양생태계 보전사업(YSLME)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중 해양환경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하여 유해해양생물 관리 및 황해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공단은 중국 기관으로 알려진 노무라입깃해파리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14년부터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IOCAS)와 함께 한·중 해파리 전문가 워크숍을 매년 개최해 왔다. 올해는 해파리뿐만 아니라 최근 대량발생으로 인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갯끈풀, 갯생이모자반, 유해조류(적조생물) 등으로 논의를 확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노무라입깃해파리와 갯생이모자반은 중국에서 기인하는 해양생물로서 황

해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따라서, 월경성 해양생물에 대한 문제는 국가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실정으로 중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효과적이다. 이에 우리 공단은 한·중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YSLME와 협력하여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공단은 한·중 양국이 최초로 유해해양생물 전반에 대해 논의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유해해양생물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공동 협력체계 기반이 되어 국내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한·중-YSLME 유해해양생물 워크숍이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양국 간 유해해양생물 관리정책 공유를 위한 든든한 플랫폼이 되어주길 바라며, 이를 통해 한·중 유해해양생물 대량발생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중국 #유해해양생물대응



중소기업 상생경영을 통한 ‘올해의 제품상’

해양환경공단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장비인 ‘파워팩 일체형 자항식 유회수기’가 참신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5월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8 경기국제보트쇼에서 아이디어부문 올해의 제품상을 수상했다. ‘파워팩 일체형 자항식 유회수기’는 공단과 성동마린(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장비로,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개발됐다.

#파워팩일체형자항식유회수기 #경기국제보트쇼 #올해의제품



2017년도 해수부 주관 홍보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해양환경공단은 6월 1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2017년 유관기관 정책소통 평가’에서 국민 소통 활성화와 적극적 홍보 활동으로 유관기관 홍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해양환경 정책 홍보에 앞장섰다. 특히 파급력이 큰 SNS 채널을 통해 대중과의 정보 공유와 공감 소통에 주력하고 현장 접점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해양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홍보와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책소통평가 #홍보분야최우수



‘해양환경공단 20년사’ 발간

해양환경공단이 사명 변경과 함께 ‘해양환경공단 20년사’를 발간했다. 부제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10년, 해양환경관리공단 10년, 그리고 해양환경공단으로의 새로운 시작’으로, 370페이지 분량이다. 책에서는 1997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탄생에서부터 2008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의 출범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20년의 발전과정과 성과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재조명한다. 책자는 공단 홈페이지(www.koem.or.kr)를 통해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볼 수 있다.

#해양환경공단 #20년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해양환경 지속성장 협약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4월 25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조명래)과 해양 및 연안 환경 업무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승기 이사장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명래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 남북협력사업 및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시행 △ 해양환경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협력 및 정보 공유 △ 연구교육 사업 협업 등과 관련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상생발전

원시의 자연과 휴식을 간직한 섬 말레이시아 사바

보르네오섬 북단의 사바는 원시의 자연, 청정 바다, 토착민들의 삶이 어우러진 열대의 휴식처다.
말레이시아의 국립공원 19개 중 16개가 보르네오섬에 밀집돼 있으며, 사바의 해안선 길이는 1,400여km에 달한다.

글 사진 여행 칼럼니스트 서영진

MALAYSIA

SABAH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은 사바주와 사라왁주로 이뤄져 있다. 툰쿠 압둘 라만 해양공원, 키나발루 공원, 터틀 아일랜드 공원 등은 사바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이다. 수천 년을 지켜온 자연 생태계와 밀림은 사바에 ‘아시아의 허파’라는 수식어를 남겼다. 희귀한 해양 생물과 환경은 사바가 간직한 소중한 보물들이다.

사바주의 주도는 코타키나발루다. 코타키나발루 선착장에서 보트를 타고 20여 분 달리면 가슴 뛰는 툰쿠 압둘 라만 해양 공원에 닿는다. 이곳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섬마다 자리를 빼곡히 메운 북적거리는 관광객들을 발견하기 힘들다. 5개의 섬으로 이뤄진 툰쿠 압둘 라만 공원은 유럽 배낭족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와 트레킹이나 산호초 다이빙을 즐긴 뒤 해변에서 조용히 머물다 가는 곳이다.

다채로운 바다빛의 해양국립공원

5개의 섬마다 개성은 잔잔하게 녹아들어 있다. 툰쿠 압둘 라만 공원의 관문이 되는 곳은 가야 섬이다. ‘크다’라는 의미가 담긴 가야 섬의 해안선은 26km에 달한다. 가야섬에는 변화가나 쇼핑골목이 번잡하게 조성돼 있지는 않다. 자연스럽게 풍겨나는 전원미 가득한 캄퐁(전통마을) 분위기가 섬의 매력이다. 등성등성 리조트가 들어선 고유의 모래해변과 맹글로브 숲으로 뒤덮인 늪지, 섬에만 서식한다는 고유종 식물들은 안락한 휴식을 선사한다. 숲 사이를 거닐며 에코 트레킹을 즐길 수도 있다.

마누칸 섬은 스노클링, 수중 다이빙 등을 위한 최적의 장소다. 오두막 타입의 숙박시설과 다채로운 해양 레포츠로 청춘들에게 인기 높은 섬이다. 소동고렝(오징어 튀김)안주에 타이거 맥주 한잔을 기울이며 섬에서 맞는 저녁 또한 장관이다. 파도가 잔잔해 각종 열대어와 산호초를 볼 수 있는 사피



섬은 공원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한다. 가장 작은 마무틱 섬과 외딴 솔록 섬은 호젓함으로 매력을 발산한다. 한적하고 문명의 방해를 받지 않은 섬은 은밀한 휴식을 만들어낸다. 툰쿠 압둘 라만 일대는 해양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자연의 보고다. 산호초 사이를 헤엄치는 열대어 외에도 바다거북, 이구아나 등 희귀한 열대생물들과 느닷없이 조우할 수 있다. 사바주 동쪽의 터틀 아일랜드 공원은 바다거북의 산란지로 알려진 곳이다. 푸른거북 등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섬 전역이 해양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국립공원에는 바다거북의 삶과 산란 과정을 지켜보는 독특한 투어도 가능하다. 코타키나발루 북동쪽의 만타나니섬은 3개의 섬을 간직한 외딴 섬으로 에메랄드빛 바다와 청정해변이 최근 사랑받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키나발루산

바다와 맞닿은 사바주에서는 거대한 산도 만난다. 사바주에서 땅이 빚어낸 보석은 키나발루산이다. 키나발루산은 산 애호가들에게는 ‘로망의 공간’이다. 동남아시아 최대 높이(4,095m)인 키나발루산과 공원 일대는 말레이시아 최초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공원의 규모는 싱가포르보다 넓고 정상까지 왕복하려면 꼬박 이틀은 걸려야 한다.

키나발루 산은 높이에 따라 다양한 식생이 서식하는 에코투어의 천국이다. 화려한 꽃과 웅장한 나무 속에서 운이 좋다면 사바주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인 ‘라플레시아’를 만날 수 있다. 산악 트레킹은 섬에서 즐기는 트레킹과는 또 다르다. 열대의 습기 대신 수천m 높이의 서늘한 기운이 동행한다. 산새 소리도 한 뼘 더 높고 그윽하다.

키나발루는 원주민의 말로 ‘영혼의 안식처’라는 의미를 지녔다. 1,000m가



넘는 산자락에서 원주민인 카다잔, 두순 족들은 벼농사를 짓고 야채를 재배하며 산다. 키나발루산에서는 산을 에돌아 닿는 포링온천에 둘러 이색은 천욕을 하거나 나무 사이에 매달린 줄 사이를 걷는 캐노피 체험을 즐길 수도 있다.

섬과 산의 자연을 벗어나면 사바주의 주도이자 여행자들의 아지트인 코타키나발루가 모습을 드러낸다. 도심 워터프런트는 이곳 청춘들이 밤만 되면 모이는 데이트 코스다. 해변을 낀 데크 위에는 노천 바가 준비하게 늘어져 있다. 미로같은 골목이 독특한 필리핀 마켓은 이 일대에서 나는 온갖 토산품을 판매한다. 형형색색의 열대 생선들이 쏟아지는 생선 시장도 포구에 선다. 코타키나발루에서는 어느 식당을 방문해도 해산물 요리가 풍성하게 식탁 위에 오른다.

천혜의 국립공원과는 별개로 코타키나발루의 바닷가에는 최고급 시설을 자랑하는 호텔과 리조트들이 밀집돼 있다. 섬에서의 생동감 넘치는 일과를 보낸 여행자들은 안락한 숙소에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해변가 노을에 몸을 기대면 바다가 선사한 깊은 휴식이 파도의 파문과 함께 찾아든다. 현지인들이 거주하는 바다 위의 캄퐁(수상가옥)들은 화려한 리조트 발코니 너머로 아득하게 펼쳐진다.

사바주가 속한 동말레이시아의 풍습은 말레이 반도와는 또 다르다. 이곳 사람들의 종교는 토속신앙을 비롯해 다채롭다. 원주민인 루구스족의 숙소인 ‘롱하우스’에서 1박2일 체험을 하거나 쌀로 빚은 민속주 ‘리항’을 맛볼 수도 있다. 보르네오의 터줏대감인 오랑우탄을 사바의 열대우림 공원에서 조우하는 체험도 흥미진진하다.

바다에서
길어 올린
生

이 정 자 수 필 가



한라산 동쪽 끝 해안가에 소담하게 자리 잡은 해녀마을 하도리. 이곳에서 나고 자란 이정자 수필가는 어린 시절부터 뛰놀던 제주의 바다, 토끼섬 등을 배경으로 소탈한 제주인들의 삶을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낸다. 과거의 시간 속에서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녀와 함께 해녀마을 하도리로 여행을 떠나보았다.

글 김수는 사진 주효상

파도가 일렁이는 해안선을 따라 동쪽으로 달리면 고향마을에 다다른 듯 마음이 포근해진다. 해안도로 왼쪽에는 서문동 포구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현무암을 쌓아 올려 만든 별방진 이 보인다. 이곳을 지나면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지는 수평선과 에메랄드빛 바다. 어린 시절 이정자 수필가는 이곳에서 친구들과 조개도 잡고 해엄을 치며 놀았다.

현무암 바위들이 모래사장처럼 펼쳐진 곳에 솟아오른 아트막한 언덕에는 삼대가 태와과 망사리를 짚어진 모습의 해녀상이 서 있다. 넉넉한 웃음을 짓고 있는 할머니 해녀를 비롯해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 그 옆에 동생을 들쳐 업은 아이도 있어 훨씬 생동감이 넘친다. 굴동 포구에는 조그 만 고깃배들이 정박해있고 크고 작은 불턱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그중 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것은 '모진다리 불턱'이다.

“불턱은 해녀들이 작업하다가 물 밖으로 나와, 땀감으로 불을 피우고 몸을 따뜻하게 데우며 휴식을 취하던 장소예요. 이곳에서 해녀들은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실력이 가장 좋은 상군해녀가 이제 막 물질을 시작하는 초보해녀들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어릴 적 상군해녀인 할머니와 어머니가 물질을 할 때면 저도 동생을 업고 나왔어요. 어머니가 동생에게 젖을 먹이고 불을 쪼며 미역귀와 소라를 구워주면, 저는 망사리 속의 해산물을 바라보며 허기진 배를 채웠죠.”

해녀들의 쉼터인 불턱은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주인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상군해녀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물질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른 해녀들과 구분 없이 한곳에 둘러앉아 불을 피고, 음식을 나누어먹는다. 해산물을 많이 채취하지 못한 해녀들의 망사리 속에 상군해녀가 몰래 자신이 잡은 전복, 소라, 해삼 등을 넣어주

기도 한다. 구멍이 숭숭 뚫린 돌담으로 둘러싸인 불턱은 이처럼 풍파와 곱절이 많은 제주인들의 삶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공간이다.

이정자 수필가에게 불턱이 되어주는 것은 수많은 영감을 주며 글을 쓸 수 있게 해준 제주의 바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다. 삶이 힘들어질 때면 일렁이는 추억의 물결들이 밀려와 마음을 다독여주기 때문이다. 그 다채로운 경험들은 삶의 순간순간 영감으로 떠올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주었다. 문우들과 함께 수필 공부를 하는 시간과, 인생의 부침(浮沈)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삶의 소중한 불턱이 되어주고 있다.

빛나는 과거의 시간을 한 권의 책으로

그녀에게 제주 해녀들의 삶은 가장 큰 이야기 소재다. 아기를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되었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다시 물질을 하러 바다에 나왔다는 해녀들의 고달픈 삶은 지난해 출간된 작품집 <불턱의 꽃> 중 '고향연가', '물결치는 그리움'이란 글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상군해녀의 딸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그 인생 속에 스며들었던 그녀도 결혼을 하고 물질을 한 적이 있다. 스무 살 무렵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결혼을 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에게 시할머니는 항아리 속에 숨겨놓은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 고무 옷을 맞춰주었다. '육지에서 시집와 무엇을 할 줄 알겠냐'는 눈길로 바라보던 사람들의 염려를 단숨에 잠재운 능숙한 자맥질과 힘찬 숨비 소리. 그렇게 벌어 모은 돈은 종잣돈이 되어 집을 마련하고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되었다.

학창시절 국군장병 아저씨께 보내는 위문편지를 잘 써 선생님께 칭찬을 듣곤 했던 그녀는 두 아들을 낳고 평범한 전업주부로 사는 동안 틈틈이 글



숨씨를 발휘했다. 제주문인협회에서 주최한 주부백일장에서 ‘입선’을 하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어 채택된 일은 ‘문학소녀’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강좌를 듣던 시절, 먼저 등단한 지인의 권유로 삶에서 체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2010년 ‘수필과 비평’으로 등단한 그녀의 꿈과 열정은 지난해 <불턱의 꽃>을 출간하면서 열매를 맺었다.

전업 작가처럼 집필실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작업을 하진 못하지만 지금도 새벽 4시면 일어나 글을 쓰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는다. 매주 토요일이면 수필공부모임에 참석한다. 이곳에서 만난 문우들과 함께 서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삭막한 도시의 삶에 휴식과 위로를 전하다

한여름에 꾸는 달콤한 꿈처럼 매년 7월에서 9월까지 문주란 꽃이 하얗게 피어난다는 ‘토끼섬’으로 향했다. 연한 꽃대에서 피어난 하얀 꽃술은 조그만 몸통을 웅송그리며 앉아있는 토끼 같다. 문주란 향기는 천 리에 퍼진다고 하여 ‘천리향’으로 불리는데, 백합처럼 단아하지만 제주인의 삶처럼 소박하다. 토끼섬을 뒤로 한 채 걸으면 돌다리 주변에 거위와 오리들이 평화롭게 뛰노는 사육장이 나온다. 그 너머 해안선을 따라가면 고운 모래와 아름다운 물색을 자랑하는 진모살 해수욕장이 눈 앞에 펼쳐진다. 이정자 수필가는 어린 시절 이곳에서 토끼섬까지 해엄을 치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을 떠올린다. 굵이굵이 밀려오는 기억들은 책 속의 글이 되어 잔잔한 감동으로 밀려온다. 그녀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다가 추억을 꺼내보듯 책을 펼쳐본다.

“지난해 첫 책이 나왔을 때가 생각나요.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을 그동안 써두었던 작품들을 퇴고하면서 보냈는데, 그 과정이 두 아들을 낳을 때보다 어려웠습니다. 책이 나올 때 그동안 느꼈던 산고의 고통이 떠올라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앞으로도 제주의 바다와 해녀들의 삶을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어요. 더불어 그동안 국내와 해외로 여행을 하면서 얻은 경험들도 담아낼 계획입니다.”

그녀의 글귀가 삭막한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휴식과 위로가 되어주는 ‘불턱’이 되길 기대해본다.

3년마다 수필집을 출간할 예정인 이정자 수필가는 깊이 있는 해설로 ‘해녀문화’와 ‘제주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평이하게 다뤄져 내실 있는 콘텐츠와 깊이가 부족한 ‘해녀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다고 또 기회가 닿는다면 해녀의 삶을 다룬 연극무대에도 오를 계획이다. ‘한라문화제’의 일환으로 연극 무대에 올라 ‘은상’을 수상했던 이정자 수필가는 해녀들의 고유의 몸짓과 언어,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연극을 통해 고향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길 소망한다. 더불어 점점 사라져가는 제주의 고유어를 되살리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어린이집 교사였던 시절, 제주어 보존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홍보부장으로 활동했다. 집안의 만능주부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로 손녀들을 돌보며 실 틈이 없어 중단했던 제주어 보존에 관한 일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는 제주의 언어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이정자 수필가의 생각이다.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다’는 말을 증명하듯 열정 가득한 이정자 수필가의 활동이 기대된다. 불턱에 피어난 꽃처럼 그녀의 활동이 ‘열정의 불꽃’으로 피어나길 바란다.

이정자 수필가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출생
 2010년 수필과 비평 ‘신인상’으로 등단
 2017년 수필집 <불턱의 꽃> 출간
 수필과비평작가회의, 제주문인협회, 제주수필문학회 회원





소년,

플라스틱을 먹는 인류를 구하다

21세기 마린 보이, 보얀 슬랫

세상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다. 지도에는 없지만 존재하는 섬,
이른바 '거대 태평양 쓰레기 지대(GPGP, Great Pacific Garbage Patch)'도 그중 하나.
GPGP는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의 바다 위를 부유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으로 면적이 대한민국의 16배에 달한다.
문제는 이 거대한 섬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섬이 바다와 인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겠다는 소년이 여기 있다.

글 정호훈 칼럼리스트



바다와 함께 죽음을 맞이한 인류

몇 해 전,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Kiribati}의 대통령은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석탄 채굴과 광산 개발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결국 국토가 수몰될 것이기 때문. 해수면 상승으로 소금물이 우물에 들어와 식수난에 작물이 죽어 나가는 등 저지대 섬들은 이미 죽을 맛이다.

그런데, 균형이 깨진 바다의 공격은 더이상 남 이야기가 아니다. 지구상에 이상기후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다. 여기에 GPGP와 같은 존재는 인류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간다.

문제가 이쯤 되니, 환경 운동의 일환으로 GPGP를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까지 나왔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청소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판단했다. 7만 8,000년의 시간과 수백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 절망의 시점에 문제를 풀어보겠다면, 해성과 같이 한 소년이 나타난다.

바다를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을 생각하다

2011년 어느 날 다이빙을 즐기던 네덜란드 소년은 바다에 가득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 이후 이 '고딩'은 이 문제를 풀기로 작정한다. 이듬해 그는 TED 강연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했고, 200만 달러가 넘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환경 크라우드 펀딩을 달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2013년 18세의 나이로 비영리

단체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을 설립했다. 그리고

2014년 그는 UN 환경계획의 지구환경 대상

에서 역대 최연소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1994년생, 보얀 슬랫^{Boyan Slat}. 그는 해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에 착안, 사람이 직접 모으지 않아도 해류가 쓰레기를 모아준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해류 길목에 긴 장벽을 놓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기존 방식보다 비용은 1/33,

속도는 무려 7,900배가 더 빠르며, 10년 이내에 태평양 쓰레기 절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

전 세계의 지지와 후원으로 보얀 슬랫의 아이디어는 올해 일본의 대마도에서 가동된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해양 쓰레기 청소는 시도는 해봐야 할 만큼 인류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라는 그의 말에서 희망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슈퍼맨 한 명으로 풀리기 어렵다. 플라스틱의 사용을 멈추지 않는 한

오염은 '자업자득', 해결은 '결자해지'

이 와중에 다수의 국내 브랜드가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해 온 것이 최근 알려졌다. 그중에는 수산물 가공을 업으로 하는 기업들도 여럿 있어 충격을 주었다. 아직도 돈만 벌면 된다는 미개한 생각을 하는 자들 덕분에, 머지않아 인류는 영화 <설국열차>에 나오는 곤충으로 만든 단백질 블록으로 먹고살아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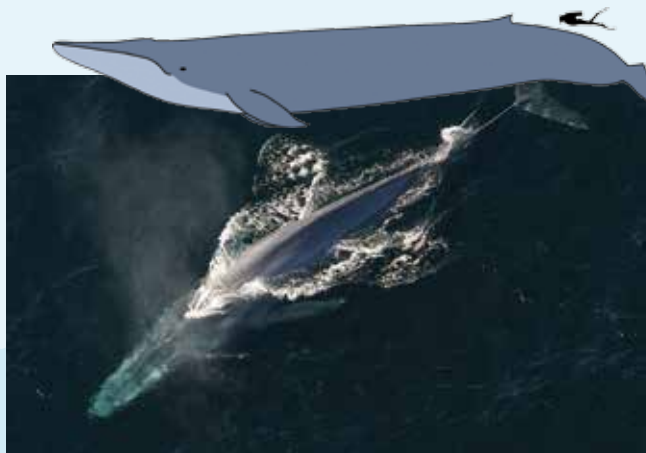
환경 다큐멘터리 <비포 더 플러드^{Before the Flood}, 2016>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화석연료 기업의 후원받는 언론이 문제라며, 지구 온난화는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정치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사회 인식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해양쓰레기는 계속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때로는 많은 지식이 호기심을 죽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의 틀에 갇힐 위험이 있다. 우리는 많은 분야의 사람이 프로젝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는 보얀 슬랫의 말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고래는

어떻게 덩치가 그렇게 커졌나

글 강석기 과학칼럼니스트 사진 위키피디아



몸무게가 100톤을 훌쩍 넘는 대왕고래는 현재뿐 아니라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로 추정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거대한 몸집은 불과 450만 년 사이 해양생태계 변화에 맞춰 진화한 결과다. 위는 대왕고래와 사람 크기를 비교한 일러스트다.

코끼리가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덩치일 것이다. 코끼리는 땅 위에 사는 동물 가운데 가장 커서 아프리카코끼리 수컷은 키가 4m에 몸무게는 최대 10톤에 이른다. 뚱뚱한 어른 100명이 모여야 코끼리 한 마리 몸무게라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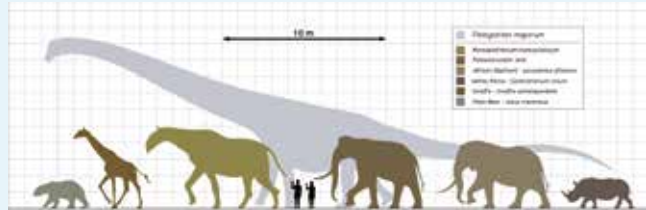
그런데 과거에는 코끼리보다 훨씬 큰 육상 동물이 많았다. 용각류로 불리는, 목이 무척 긴 초식공룡 대부분은 몸무게가 10톤을 '가볍게' 넘었다. 특히 2014년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파타고티탄^{Patagotitan}은 화석을 토대로 추정한 몸길이가 37m, 몸무게가 69톤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다. 육상 포유류 가운데는 코끼리의 일종으로 2만 4,000여 년 전 멸종한 팔레올록소돈^{Palaeoloxodon}이 기록 보유자로 키가 5m가 넘었고 몸무게는 22톤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바다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지구에서 살았던 동물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큰 건 어느 정도였을까. 지금까지 밝혀진 화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전제는 있지만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대왕고래(흰긴수염고래)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로 몸무게가 173톤에 이르는 개체가 잡힌 적이 있다. 지금 바다 어딘가에서 몸무게 200톤에 이르는 대왕고래가 헤엄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고래는 어떻게 이처럼 거대한 몸을 지니게 됐을까.

해양 포유류 몸집이 커진 이유 밝혀

학술지 '미국립과학원회보' 4월 17일 자에는 해양 포유류의 덩치가 커진 이유를 설명하는 논문이 실렸다. 고래를 비롯해 모든 해양 포유류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들 육상 포유류다. 즉 크게 네 종류의 육상 포유류가 독립적으로 바다에 몸을 담근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래와 돌고래는 소목(目)으로 분류되는데 육상 동물 가운데 하마와 가장 가깝다. 다음으로 물개와 바닷사자가 포함된 기각류는 식육목(目)의 하나로 개나 고양이와 친척이다. 듀공과 매너티 같은 바다소 종류는 아프로테리아상목(上目)에 속하는데 코끼리가 먼 친척이다. 끝으로 해달과 수달은 족제비류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자들은 현재 살고있는 해양 포유류와 멸종된 해양 포유류의 몸무게 데이터(멸종된 경우 화석에서 추정)를 분석해 흥미로운



한때 육지에는 몸무게가 70톤에 가까운 파타고티탄 같은 공룡도 살았지만 지금은 다 사라지고 아프리카 코끼리가 지상 최대 동물이 됐다.

결과를 얻었다. 즉 물과 바다를 오가며 사는 해달류를 제외한 세 그룹의 평균 몸무게가 500kg 내외로 나온 것이다. 이는 같은 그룹의 육상 포유류 평균 몸무게보다 훨씬 큰 값이었다. 즉 육상 동물이 바다로 들어온 뒤 덩치가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이런 진화를 이끌었을까.

이에 대해 지금까지는 중력이 유력한 설명이었다. 즉 물의 부력으로 몸을 지탱할 부담이 없어지자 마음 놓고 덩치가 커질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해양 포유류의 크기가 다양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육상 포유류보다 폭이 좁았다.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에너지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먼저 포유류 같은 정온동물이 찬 바닷물에서 살려면 덩치가 어느 선을 넘어야 한다. 즉 덩치가 작으면 부피 대비 표면적의 비율이 커 열을 쉽게 빼앗기므로 체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육상에는 몸무게가 수 그램에 불과한 포유류도 있는 반면 해양 포유류는 최소한 킬로그램 단위인 이유다.

다음으로 연구자들은 잉여에너지 개념을 도입해 해양 포유류 덩치의 상한치를 추정했다. 잉여에너지는 먹이에서 얻은 에너지에서 기초대사량과 주변에 열로 빼앗기는 에너지를 뺀 값이다. 잉여에너지가 클수록 더 잘 자라고 새끼도 많이 낳을 수 있다. 즉 이런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난다는 말이다. 이렇게 만든 수치모형을 적용하자 해양 포유류의 몸무게가 500kg 내외에서 수렴하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해양 포유류가 있다. 바로 수염고래다. 고래는 이빨고래와 수염고래로 나뉘는데, 이 모형은 이빨고래류의 몸무게 분포만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지구 최대의 동물인 대왕고래를 비롯한 수염고래류 15종의 평균 몸무게는 수십 톤에 이른다. 모형에 따르면 이렇게 덩치가 클 경우 먹이에서 얻는 에너지가 기초대사량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염고래가 존재한다는 건 먹이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거나 기초대사량이 적어지게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포유류의 기초대사량이 갑자기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에너지섭취

쪽의 변화가 수염고래 덩치가 커진 원동력일 것이다. 수염고래는 바닷물을 잔뜩 머금은 뒤 이빨 대신 있는 빗 같은 수염으로 새우 같은 작은 먹이를 걸러 먹는다. 화석을 보면 수염고래는 대략 3,400만 년 전에 등장했는데 거의 3,000만 년 동안 최대 크기가 10m가 안 됐다. 그런데 지난 450만 년 사이 갑자기 덩치가 커져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지난해 학술지 '영국왕립학회보 B'에는 이런 극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가설을 담은 논문이 실렸다. 즉 이 무렵 빙하기가 시작돼 해양기후도 급변하면서 바닷물에 영양이 풍부해지고 수직으로 순환하는 움직임이 생겨 먹이인 플랑크톤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바닷물을 삼켜 먹이를 걸러 먹는 수염고래는 쉽게 많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반영해 수식을 변형하자 오늘날 수염고래의 덩치를 잘 설명할 수 있었다. 대왕고래는 하루에 최대 3.6톤의 크릴새우를 먹는 것으로 추정된다. 새우 한 마리 무게를 1그램이라고 치면 360만 마리인 셈이다.

육지의 거대포유류는 수만 년 전 대부분 멸종했는데 인류의 지나친 사냥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오늘날에는 상아에 대한 욕심이 코끼리를 멸종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구 최대 동물인 고래 역시 지난 수백 년 동안 기름(주로 서구)과 고기(주로 일본)를 노린 사람들 등쌀에 개체수가 급감했지만 늦게나마 인류가 정신을 차린 덕에(1966년 포경금지 국제조약 체결) 멸종은 면하게 됐다. 앞으로도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돼 지구 역사상 최대의 동물인 고래가 늘 함께하기를 바란다.



대왕고래의 두개골로 길이가 5.8m에 이른다. 대왕고래가 속한 수염고래류는 거대한 입으로 물을 삼켜 수염으로 먹이를 걸러 먹는다.

바쁜 당신, _____올여름엔 문화 바캉스 어때요?

성큼 다가온 여름, 산과 바다를 대신하는 다채로운 '문화 바캉스'의 기회를 <해맑은 이야기>가 소개한다.



<웃는남자>

기간 7.10(화) - 8.26(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EMK뮤지컬컴퍼니 1577-6478

창작 뮤지컬 ‘웃는남자’

올여름, EMK뮤지컬컴퍼니(이하 EMK)는 2016년 ‘마타하리’ 이후, 2년 만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두 번째 창작 뮤지컬 ‘웃는 남자’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선보인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웃는 남자 L’Homme qui rit』(1869)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웃는 남자’는 위대한 거장이 쌓아 올린 탄탄한 서사구조를 뮤지컬 양식에 걸맞게 완벽히 구축하여 21세기 최고의 창작 뮤지컬로 탄생시킬 예정이다.

EMK가 2013년부터 제작비 175억 원을 투자해 최정상의 스태프들과 5년간 혼신의 공을 들여온 작품으로도 세간의 화제를 모은 이번 작품은 뮤지컬계 ‘미다스의 손’으로 일컬어지는 엄홍현 총괄 프로듀서를 필두로 어느덧 한국에서 10년 동안 활약하며 ‘레베카’, ‘엘리자벳’, ‘팬텀’ 등 수 많은 흥행작을 연출해 온 로버트 요한슨Robert Johanson이 ‘웃는 남자’의 대본과 연출을 맡았다.

또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Frank Wildhorn과 그의 황금 콤비 작사가 잭 머피Jack Murphy,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뮤지컬 앨범상 수상에 빛나는 제이슨 하울랜드Jason Howland, 뮤지컬 음악의 ‘작은 거인’ 김문정 음악 감독 등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스태프들이 참여해 관객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EMK의 뮤지컬 ‘웃는남자’는 신분 차별이 극심했던 17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끔찍한 괴물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순수한 인물인 그윈플렌의 여정을 따라 사회 정의와 인간성이 무너진 세태를 비판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조명하는 작품이다. 최첨단 무대 기술과 독창적인 무대 디자인으로 빈민층과 귀족의 삶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17세기 영국을 재현하고 휘몰아치듯 격정적인 서사와 그윈플렌의 비극적 아픔을 서정적인 음악으로 아름답게 그려낸다. 특히 인신매매단 ‘콤포라치코스’가 어린 그윈플렌을 항구에 버려두고 출항해 바다 위를 표류하는 장면과 버림 받은 그윈플렌이 매서운 눈보라 속을 정처 없이 헤매다 어린 데아를 만나는 장면은 극강의 무대예술로 완성되어 최고의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대본과 연출을 맡은 로버트 요한슨은 “관객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놀랄만한 광경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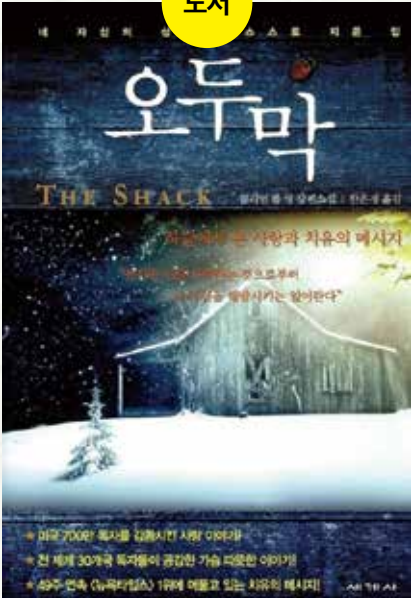
<500일의 썸머>

코미디, 드라마 / 2010년 개봉작 / 감독 마크 웹

500일의 썸머

제목과는 달리 여름을 상징하는 장면들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여름 하면 생각나는 영화로 ‘500일의 썸머’를 꼽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화의 두 주인공 톰과 썸머는 같은 회사 동료로 만나 관계를 이어나간다. 운명과 사랑을 믿는 청년 톰과 다르게 썸머는 관계에 구속되는 것을 거부한다. 두 사람은 친구도 연인도 아닌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화는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시각 중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는다. 두 사람의 만남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모두 톰과 같은 ‘여름’을 지나오기 때문이다. 이 영화의 또 다른 즐거움은 영화의 OST다. 처음 썸머와 톰의 만남을 이어준 노래인 ‘There is a light that never goes out’부터 톰의 설레는 심장을 잘 대변한 노래 Hall & Oates의 ‘You Make My Dreams’ 등 OST와 두 사람의 관계가 스토리 내에서 잘 어우러진다.

도서



『오두막』

저자 윌리엄 폴 영 / 번역 한은경 / 출판사 세계사

오두막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았던 원고가 어렵게 출간되었다. 그런데 그 책이 입소문만으로 미국에서 600만 부가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오두막』이 이제 당신 가슴에도 기적을 일으킨다.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만의 슬픔과 깨어진 꿈, 상처 입은 가슴이 있고, 각자만의 상실감과 ‘오두막’이 있다. 딸을 잃은 슬픔에 잠긴 한 아버지가 하나님의 계시에 이끌려 찾아간 곳은 바로 자신의 딸이 납치되어 살해되었던 오두막, 즉 ‘고통’이 시작된 곳이다. 작가는 바로 그 곳에서 우리의 내면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채워질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올 여름 우리 마음 속 깊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감동적인 소설 『오두막』을 만나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자.

전시



<니키 드 생팔전_마즈다 컬렉션>

기간 6.30(토) - 9.25(화) 장소 한가람미술관 제1, 2 전시실
문의 예술의전당 02-580-1300

니키 드 생팔전_마즈다 컬렉션

자유로운 기쁨의 에너지와 현실을 향한 날카로운 통찰의 상징, 현대미술의 대표 작가 니키 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1930-2002)을 올 여름 한국에서 만날 수 있다. 6월 30일부터 9월 25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니키 드 생팔의 작품 중 요코 마즈다 시즈에의 소장품 127점을 소개한다. 니키는 1961년 <사격회화shooting painting>를 통해 현대미술계에서 이름을 알리게 된다. 그 후 화려한 색채와 활력 넘치는 이미지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나나Nana> 연작 작업에 주력하여 전 세계 곳곳에 <나나>가 설치되어 모성과 여성성의 상징으로 사랑받은 바 있다. 이번 전시회는 니키 드 생팔의 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사라져가는 갯게를 지켜주세요

서해안 돌무더기가 있는 바닷가에 갯게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갯게 가족은 돌 밑에 살면서 위험이나 천적을 피했지요. 그런데 새끼 갯게가 돌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돌 밑에만 있기에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아가야, 밖은 위험하단다.”

엄마가 말했어요.

“놀고 싶단 말이에요.”

“바다 새나 고양이 밥이 될 수도 있어.”

아빠가 타일렀어요.

“어제도 못 놀고 오늘도 못 놀면 언제 놀아요?”

새끼 갯게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게 말이다. 사람들이 연안을 매립해 육지로 만들어 개발을 하는 바람에 건물이 들어서고 길이 나서 우리가 살 곳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

아빠가 말했어요.

“게다가 쓰레기도 마음대로 버려서 어디를 봐도 쓰레기가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먹을 것도 줄어들고 있고요.”

새끼 갯게가 침울하게 말했어요.

“안타깝지만 사실이 그렇단다. 아빠가 어렸을 땐 이곳도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어.”

아빠 갯게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앞으로 태어날 내 동생들은 어떻게 살아요?”

새끼 갯게는 엄마를 보며 물었어요.

알을 품고 있던 엄마 갯게는 한숨만 내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러고 있을 순 없지! 아빠랑 같이 밖으로 나가보자!”

아빠가 새끼 갯게에게 말했어요.

“나도 같이 갈래요.”

엄마 갯게가 말했어요.

아빠 엄마를 따라서 새끼 갯게는 돌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갈매기가 나타났어요.

“얼른 피해! 다시 돌 틈으로 돌아가자!”

아빠 갯게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새끼 갯게와 엄마 갯게는 공포로 굳어져 다가오는 갈매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갈매기가 엄마 갯게와 새끼 갯게를 덮치기 바로 직전 커다란 손이 나타나 갈매기를 쫓아 버렸어요.

“아이구, 큰일 날뻔 했구나.”

라고 따뜻하게 말하고는 다시 누군가에게 소리쳤어요.

“여기야 여기! 여기에 갯게 가족이 있어”

커다란 손이 사라지고 미소 짓는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변으로 저벅저벅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안심하렴. 이제는 안전할 거야”

“어디 좀 보세요.”

사람들이 갯게를 보호하기 위해 깨끗한 물과 아늑한 쉼터가 있는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유리로 막힌 수조에서 어리둥절한 갯게 가족이 서로 뭉쳐 있었어요.

“아빠, 여기는 어디죠?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는 걸까요?”

“글쎄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갯게 가족은 깨끗한 물과 따뜻하고 아늑한 쉼터가 있는 새 보금자리에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특히나, 친절한 사람들은 알을 품고 있는 엄마 갯게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계속 신경을 써 줬어요.

“엄마, 동생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만들어 준 보금자리가 동생들을 키우기에 안성맞춤인 것 같아.”



엄마 갯게가 미소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동생들이 태어나면 이곳이 좁을 것 같아. 마음껏 갯벌을 뛰놀아야 건강하게 자랄 텐데”

아빠 갯게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영원히 이 좁은 곳에서 사는 거예요?”

새끼 갯게는 잔뜩 들떴다가 다시 풀이 죽었어요.

아빠 갯게와 엄마 갯게는 말이 없이 서로만 쳐다봤어요.

시간이 지나, 갯게 동생들이 부화해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어느 날,

“이제 새끼 갯게들도 건강하게 잘 자란 것 같으니 고향으로 보내도 될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갯게 가족을 보며 말한 후,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고 적힌 지역에 갯게 가족들을 방류해주었어요.

그곳은 갈대가 우거져 있고 물이 아주 맑은 곳이었어요.

“우와 바닷냄새!” 새끼 갯게가 신이나 말했어요.

“예전 그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아빠와 엄마 갯게도 감격에 차 말했어요.

“이제 여기서 건강하게 살아가렴!” 사람들은 갯게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며 떠나갔어요.

새끼 갯게는 그사이 제법 몸이 단단해지고 커졌지요.

“헤엄치려면 준비 운동부터 해야 해. 형이 하는 거 보고 잘 따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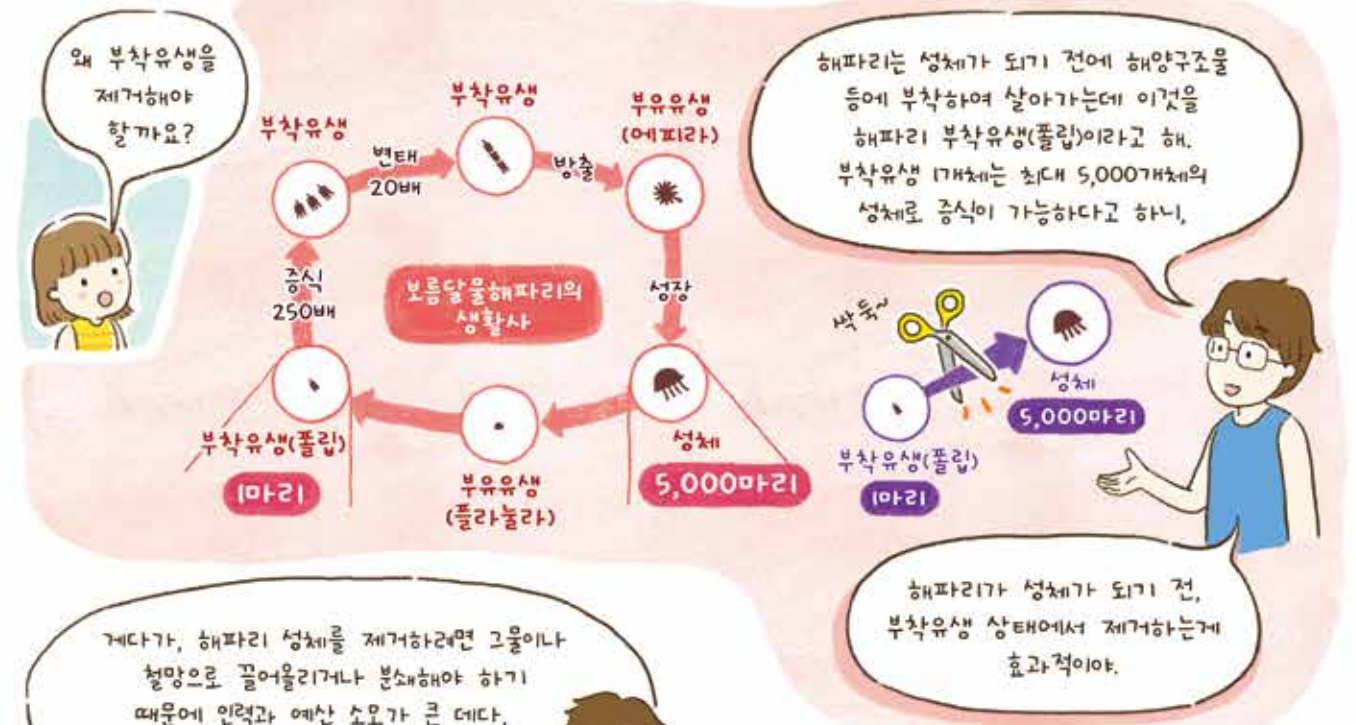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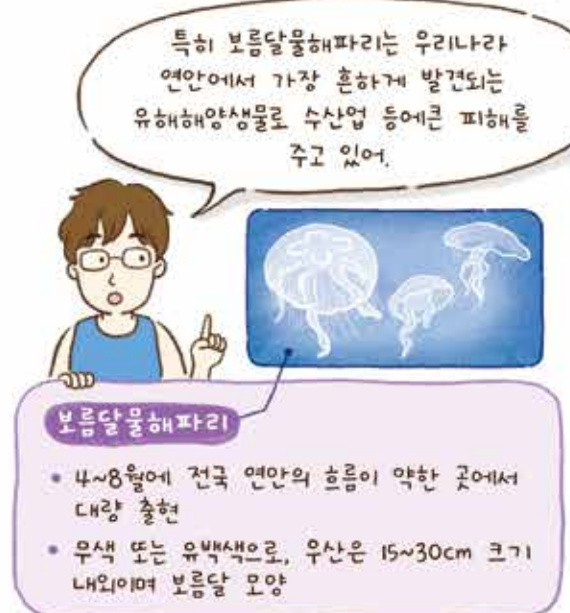
동생들에게 갯벌을 달리고 땅을 파는 방법을 알려주느라 바빴지만, 무척 행복했어요.



QR코드를 스캔하면
‘사라져 가는 갯게를 지켜주세요’ 동화를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순수해, 바다 이야기

보름달물해파리 소탕!





<해맑은 이야기>의 '파란우체통' 코너는 독자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이메일(koemseas@daum.net)로 다양한 사연을 뽑내보세요
보내실 때에는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기한은 7월 31일까지.



글 전경옥(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 4로)

회 국 수 맛 집 의 추 억

여름 휴가철에 바닷가를 놀러 갈 때 꼭 빼놓지 않고 들르는 맛집이 바로 회 국수 맛집이다. 횃집이나 식당에서 파는 회 국수도 괜찮지만, 민박집에서 할머니들이 맡아주시는 매운 비빔 회 국수를 나는 더 선호하고는 한다.
비록 카드결제는 안 되고 투박한 모습의 실내디자인과 음식 비주얼이긴 하지만 비릿함도 없고 쫄득하게 씹히는 식감까지 일류호텔 음식점 쉼프 못지 않은 솜씨를 할머니들은 발휘하신다.
여름철 이열치열 하고자 할 때는 아주 매운맛의 회 칼국수가 일품이 아닐까 싶다. 민박집 대청마루에 옹기종기 앉아 먹는 회 국수의 맛 그리고 정갈하게 담아 지역색을 잘 보여주는 밑반찬까지 아주 운치 있는 휴가철 저녁 식사의 풍경아 아닐까 싶다. 아이들은 먹고서도 입가에 얼

얼한 매운맛이 가시지 않은 지 물을 여러 번 들이키고 수박이나 참외로 매운맛을 달래던 모습을 연출하고는 한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유년 시절의 기억들 스멀스멀 떠오르고는 한다.
민박집의 할머니들이 맡아주는 회 국수를 찾는 것도 어찌 보면 유년시절 우리 남매에 열심히 국수를 맡아주신 친할머니 생각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입맛이 없을 때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신진대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할머니의 그 매운 국수 덕분에 여름밤 늦게까지 골목길에서 아이들과 뛰어놀아도 지치는 줄을 몰랐고, 그 혼한 병치레도 안 하고 병원 신세 한 번 안 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일 나가신 부모님 대신 우리 오 남매의 먹거리 준비와 집안 살림

하시느라 수고하셨을 할머니 손은 늘 물마를 새가 없었고 잠시도 편히 쉬시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 같다.
매콤달콤 짭짜름한 회 국수를 훌훌 먹고 있노라면 손자들을 위해 고생하셨을 할머니 생각이 절로 나게 되고 살아생전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저 아쉬울 따름이다. 회 국수 맛만큼이나 코끝 찡한 감동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주는 회 국수 맛집 투어 올 여름휴가에도 꼭 빼놓지 않고 들러 볼 생각이다.

부산에 살고 계신 고모네를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아들과 함께 갔을 때였다. 부산에 내려올 때부터 “바다! 바다!”하고 노래를 부르던 유치원생아들은 고모네 도착하자마자 바다에 가자며 손을 끌었다.
해운대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 아들은 벌써 내려서 해운대 백사장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 모습에 아버지가 위험하니까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면서 손주 뒤를 따라가셨는데 중간에 애가 넘어질까 봐 나도 조바심이 나서 얼른 뒤를 쫓았다.
하긴 얼마나 신기할 것인가. 늘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바다였다. 한 번씩 바다에 가자고 조를 때마다 “알았어. 이번 여름휴가는 바다로 가자.”해 놓고선 매번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터였다.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늘 보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는데, 이렇게 진짜로 제 눈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으니 마음이 오죽 급하랴.
“엄마, 나, 여기 바다에서 오줌 뉘도 돼요?”
“뉘?” 바다를 본 아들의 첫마디에, 너무 당황스러웠다. 내가 예상한 말은, “엄마, 바다가 정말 아름다워요. 진짜 넓어요. 너무 멋져요!”하는 말들이었는데, 오줌 뉘도 되냐니, 진짜 아이들의 엉뚱한 생각은 따라갈 수가 없구나 싶어 그저 웃음밖엔 나오지 않았다.
“이 녀석아, 바다에서 왜 오줌을 뉘? 화장실에 가서 뉘아지. 네 오줌으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더럽히고 싶어?”하면서 웃었더니, “그냥 한 번 해 보고 싶어요.” 하면서 저도 따라 웃는다. 그렇게 한참을 웃더니, “엄마, 바다가 진짜

멋있어!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하는 말에 그래, 하면서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천천히 바위 위를 내려와 가족이 있는 곳으로 와서 조금 전의 상황을 말씀드렸다.
“녀석 참, 짓궂네!”, “네 오줌 먹고 물고기들이 다 죽으면 네가 다 책임질 거야?” 하는 할아버지와 고모 말에 그제야 녀석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안 되죠. 나 물고기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하는 말에 모두가 웃고 또 웃었다.
온 가족이 함께 한 바다 여행에서 아들로 인해 재미있는 추억도 만들고, 늘 소원하던 진짜 바다를 보여줘서 내 마음도 흐뭇했다. 다음에 올 때는 또 어떤 추억을 만들어가려나...

바 다 를 처 음 본 아 들



글 박난희(경기도 시흥시 매화로 58)



미래의 보고! 바다를 만나다

2018년 해양환경교육원 교사 해양환경 직무연수(1차)를 받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초등학교들에게 해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증진을 위하여 본교에서 7명의 교사가 연수를 신청하게 되었다. 현재 본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서울 도심지역이라 학생들에게 올바른 해양의식을 함양하기에는 다소 지역적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2017~2018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해양교육활성화 연구학교로 1차연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2차연도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하는 한마음으로 하게 되었다. 2018년 1월 29일부터 31일까지의 2박 3일 17시간의 해양환경 직무연수를 받기 위해 부산으로 가는 연수 여행길은 설레고 기대만발의 행복한 발걸음이 되었다.

글 서울 상암초등학교 노선임

1월 29일 첫째 날의 일정

아침 8시 30분 부산행 KTX로 3시간 만에 부산역에 내려 부산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3(동삼동)에 위치한 해양환경교육원에 도착하였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우리 일행은 조심스레 식당 안쪽으로 가서 식사하였다. 깨끗한 식당과 집밥처럼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초록색 점퍼를 입은 해양환경교육원 관계자분들의 모습에 아침부터 서둘러 온 연수라 다소 피곤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궁금하였다. 2층 강의실에 입실하여 전국에서 해양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20명의 연수생과 함께 제대로 된 해양환경교육을 받는 기회를 가지게 됨에 기뻐했다. 우리는 최명범 해양환경교육원장으로부터 '해양환경의 이해와 중요

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우리나라 어획물 중 해역별 시대별 우점종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교사이기 전에 가정주부로서 식탁의 먹거리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해양환경이 오수, 분뇨, 생활 쓰레기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산업폐수와 폐기물로 인한 산업 활동과 대규모 간척 등의 개발사업, 선박 및 해난 사고로 인한 기름유출, 해면양식에 다른 사료 투입 등의 다양한 원인을 이유로 오염이 된다고 하셨다. 강의를 듣고 학생들에게 해양환경오염 교육을 좀 더 세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방안을 찾고 실천 행동으로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수집하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숙소에서 바라보는 바다

첫째 날 강의를 마치고 해양교육연수원 숙소에서 붉은 노을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 '바다처럼 깊은 마음'을 닦아가고 싶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국해양대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학구열에 불타는 젊은이들의 패기도 느껴보고, 부산의 오륙도를 보면서 바다와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넓게 펼쳐진 거대한 항만시설들을 보면서 과학기술의 위대함도 느끼게 되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연수 내용에 큰 기대가 되었다.

연수 이틀날, 국립수산물과학관 탐방

부산 기장에 위치한 국립수산물과학관에 도착하여 먼저 선박전시관을 관람하였다. 배의 조타실도 보고 갑판 위에 올라가 보기도 하였다. 해양자원실, 독도전시관, 수산증양시설, 수산물 영양사전, 수산생물실 등과 물고기를 직접 만질 수 있는 체험 공간 등을 관람하면서 학생들에게도 홍보를 많이 하여 다녀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일펜스 유회수기, 유처리제 등 오염방제 장비 및 약제 등을 사용하여 해상의 유류오염을 제거하는 방제선과 바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항선을 보았다. 패드형 유흡착재, 붐형 유흡착재 등 유출유 회수를 위한 해상 방제 장비들과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시연을 보면서 여러 개의 기계를 작동시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보면서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교육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일째, 태종대 등대 체험 및 국립해양박물관 방문

아침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태종대 입구에서 다누비 열차를 타고 태종대 등대를 탐방하였다.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절벽이 푸른빛 바다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왜가릿과, 수리과, 백로과, 갈매깃과 등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60여 종의 새들을 볼 수 있고, 200여 종의 상록성 수목들로 이루어진 생태계가 앞으로도 잘 보호되어야겠다. 그리고 바다와 관련된 귀중한 국내외 유물과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다양한 해양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의 남녀노소 불문하여 많은 탐방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해양의 모습과 해양산업은 해양으로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출발점이 해양환경의 심도 깊은 논의 및 실천도 될 것이라 생각되었다.

전국에서 해양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스스로 연수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드는 연수였다. 그리고 깨끗한 해양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고개가 숙여졌다. 특히 해양환경교육의 이론 및 실습과 방제작업의 선두 역할을 하시는 해양환경교육원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2017~2018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해양교육활성화 연구학교 2차연도엔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해양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연수에서 공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2018년도 해양환경 직무연수에 참여한 이들의 소감을 생생한 자필로 담았다.

전반적으로 강사님들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강의를 들 수 있었습니다.
바다를 접하지 않은 내륙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있다면 그것 역시 좋을 것 같고,
2박 3일 과잉비주신 윤수진 대리님 고맙습니다.

1. 교사가 있는 연수 강의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 직접 바다와 계를 보 실습할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3. 연수를 준비하신 분들의 노력과 성의가 느껴졌습니다.
- 감사 드립니다!

2박 3일간의 연수가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다의 중요함을 많이 알리고
지켜야 할 일도 가르쳐주세요.

운영 해주는 사, 강사님, 원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강사님 받은 연수용 최고의 연수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체험활동이 많아서 연수에 집중이 잘 되었으며, 연수용 교육환경이 매우 좋았습니다.
연수가 더욱 활성화되어 전국의 많은 교사가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18년 해양환경 직무연수 안내 •

연수기간 2018. 7. 25(수) ~ 2018. 7. 27(금)/17시간(1학점)

연수대상(인원) 전국 초·중등교사 약 30명(모집 마감)

연수장소 해양환경교육원(부산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3) 등

주요 내용 해양환경 개관(1일차)→주제 교육(2일차)→학교 적용(3일차)

연수비용 무료(왕복 교통비 개인 부담)

문의처 051-400-7725/ami2000k@koem.or.kr

기타 2018년 겨울방학 과정 개설 예정

海맑은 이야기 여름호 편집후기

신영대 과장(운영지원팀)

편집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공단 소식을 미리 접하게 되어
매우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海맑은 이야기>를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다가올 뜨거운
여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제형 대리(예산운영팀)

<海맑은 이야기>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기분 좋고 설렘이었습니다.
공단의 독도 해양생태계 사업, 플라스틱 쓰레기 섬, 고래의 몸집이 커진 이유, 문화정보 등
다채롭고 유익한 이야기가 가득하네요. <海맑은 이야기> 원으시며, 얼음 동동 띄운
아이스아메리카저런걸 시원한 여름 되세요! :D



최원천 대리(해양쓰레기대응센터)

<海맑은 이야기>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여름호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먼저 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海맑은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수진 대리(교육개발팀)

항상 읽어보지만 하던 <海맑은 이야기>에 직접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뜻 깊고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재밌는 소식과 정보들로 가득찬
소식지 기대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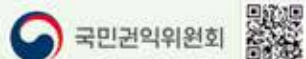


손한별 사원(해양생태팀)

‘그래, 이게 우리 공단이지.’ <海맑은 이야기> 여름호 초안을 받아보고는 제가 느낀 점입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힘쓰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 공단의 일원으로서 새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여름에 걸맞은 콘텐츠로 무장하며 한층 더 재미가 업그레이드 된 이번 <海맑은 이야기>
여름호 많이 기대해주세요! 바랍니다!



같이 만들어 가는 가치있는 세상 공익신고



- 보호**

 - 비밀보장, 신분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

 - 홈페이지 **1398.acrc.go.kr**
 - 부패·공익신고 앱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신고대상 : 5개 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 건강**

불량식품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 안전**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 환경**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 소비자 이익**

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과장광고
- 공정경쟁**

기업 간 담합
불법 산업기술 유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기간 : 2018. 5. 1. ~ 7. 31.

신고방법 :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모바일 앱

상담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검은머리물떼새



갯벌의 연미복 신사

검은머리물떼새는 **부리와 다리는 붉은색**이고 **몸색은 검은색과 흰색**을 띠고 있어 연미복을 입은 신사를 연상케 한다. 주로 서해안의 무인도바위 등에 서식하고, 굴, 게, 조개, 갯지렁이 등을 먹이로 삼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검은머리물떼새의 이종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무리가 월동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아 해양수산부는 2016년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였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수거머리말



바닷속 산소탱크

수거머리말은 광합성 능력이 뛰어나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해내는 바닷속 산소탱크다. 잘피류 중에서 가장 키가 커서 열대우림과 같은 수중의 숲을 이룬다. 수질 정화 기능도 탁월하고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장이나 보육장으로도 활용되어 해양생태계 보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7년 해양수산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었다.



**지켜주세요!!
이달의
보호해양생물**

우리가 보호해야 할 붉은바다거북



연안의 여행가

붉은바다거북은 5월에서 8월 사이의 번식기가 되면 모래사장이 있는 연안의 산란장을 찾아 여행을 시작한다. 어린 거북이 바다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와 산란에 적합한 온도를 고려하여 여러 번 확인하고 산란장소를 정한다. 그러나 연안개발 및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되어 점차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